

## 文化看護를 위한 韓國人의 民間 돌봄에 對한 研究 : 出生을 中心으로

고성희\* · 조명옥\*\* · 최영희\*\*\* · 강신표\*\*\*\*

### I. 緒 論

歴史를 통해서 볼 때 돌봄은 人類의 시작과 함께 존재해 온 現象이다. 專門職 教育이 발달되기전 부터 어떤 社會에서든지 個人, 家族, 集團에 대해 여러 형태의 돌봄이 제공되었다. 다시말해 돌봄이란 人間의 가장 오래된 표현 형태로서, 專門職 集團에서 비롯되어진 행위가 아니라 一般 大衆속에서 부터 형성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은 橫文化的 看護의 定義에서 중심적이고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며 看護를 특징지우는 근본적이고 중심적이며 통합된 그리고 지배적인 영역이다(Leininger, 1981).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병원을 다녔던 看護對象者와 保護者로부터 한결같이 “看護師가 불친절하다”는 말을 듣는다. 그 뜻을 對象者가 어떻게 표현하였던지 간에 기대되는 看護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對象者가 만족스런 看護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증거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는 人間의 돌봄 행동과 태도는 文化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看護師들은 對象者 中心의 看護를 주장하면서도 돌봄에 대한 對象者의 文化的 觀點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普遍的인 看護를 제공함으로써 民間의 돌봄과 前文의 看護사이 큰 乖離가 생긴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對象者가 만족하는 看護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식

하고 있는 健康, 疾病, 죽음, 돌봄행위, 健康行爲에 대한 思考의 原形을 理解하고 尊重하는 일이 절대적이다. 文化的 側面을 고려하지 않은 普遍的인 看護를 제공하는 비율이 클수록 看護對象者의 個別性은 간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個別性을 중시하여 獨特한 全人으로서 看護對象者를 理解하고 돕기 위해서는 專門職 看護實務에 그들의 돌봄에 대한 信念, 價値, 慣行이 反映되어야 하겠다.

한편 韓國 看護의 歴史를 되돌아 볼 때 주로 西洋 宣敎 看護師에 의해 도입된 이래 우리는 西洋의 文化에 뿌리를 둔 看護에 열중하였을 뿐, 우리의 傳統文化를 고려한 看護를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양의학과 서양학문의 지식체에 의해 看護를 해 왔고 韓國文化 즉 韓國人의 健康과 돌봄에 대한 信念, 價値, 行動類型을 찾아내는 實體理論의 開發을 통해 얻어진 지식체에 근거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韓國에서 나온 대부분의 敎授 研究論文 및 學位論文이 人間의 생물학적, 심리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文化的 脈絡과 관련된 健康, 疾病, 돌봄에 관한 연구는 드물고, 또한 計量的 研究의 선호 경향은 韓國 傳統文化와 韓國人의 健康, 疾病, 돌봄에 대한 價値, 信念, 健康慣行의 탐색에 한계점을 드러내 보인다(최영희, 1989).

研究方法論은 연구되어야 할 現象의 본질을 근거로 해서 결정해야 한다(Porter). 이제까지 돌봄에 대해 연구

\*전북의대 간호학과

\*\*개정간호 전문대학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한양대학교 민족학 연구소장

한 學者들은 돌봄행위, 가치, 표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屬性을 지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돌봄은 이처럼 모호하고, 숨겨진 그리고 철학적으로 내재된 屬性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돌봄이란 文化의 現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통찰력이 요구된다. Leininger는 看護學 分野에서 人類學的 接近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장 피아제(1980)는 학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학문체계의 깊은 구조나 그 엮물리는 이음새의 뜻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사시를 쳐나가고 있는 학문분야의 현상에만 몰두한다면 학문분야 사이의 진정한 대화가 열릴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학문분야 사이의 엮물리게 하는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人類學에서도 看護學과 같이 健康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醫療人類學이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들은 民俗健康體系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기는(Leininger, 1988) 하지만 民俗體系와 專門職體系간을 연결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돌봄이라는 文化現象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專門職看護體系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看護學과 人類學간의 엮물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돌봄이라는 概念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돌봄행위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生의 고비 現況別로 구분하여 接近하였다. 生의 고비는 個人에 따라 다르며 그 現況마다 필요로 하는 도움의 형태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어남, 죽음, 늙음, 병듬은 人間 누구나가 겪는 普遍的 經驗으로 다른 어느 고비 現況보다도 看護師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이 生의 고비를 中心으로 하여 각 現況시에 傳統的인 돌봄이 어떤 形態로 주어졌으며 어떤 意味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일환작업으로서 본 論文에서는 出生을 中心으로한 돌봄에 국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태어남은 人間이 實存의 存在로서, 法的 社會의 存在로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事件이다. 出生에 대한 傳統文化的 돌봄을 확인하는 것은 對象者를 理解하고 看護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 個人의 出生을 둘러싼 돌봄 現況을 出生 당시 뿐만 아니라 그 出生을 위한 孕胎, 나아가서 孕胎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出生을 맞이하는 당사자는 물론 母體와 母體를 둘러싼 주변사람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때, 보다 總體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서는 出生 現況을 孕胎 및 解産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論文의 目的은 生의 고비 現況 중 특히 出生과 관련된 傳統的인 돌봄행위속에서 概念을 추출하고 그 意味를 파악하는데 있다.

## II. 理論의 背景

文化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집단의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學習된 行爲와 價値의 類型이다(Leininger, 1978). 다시 말해서 文化란 思考와 行爲에 대한 靑寫眞이며, 健康-疾病線상에서의 돌봄 유형과 돌봄 행위를 결정짓는 주요인자이다.

Leininger(1978, 1985)는 看護師가 文化에 대해 學習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看護를 제공하는 기초로서 文化的 價値體系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文化看護理論을 정립하였다. 文化看護理論은 지역의 文化的 觀點이나 知識, 經驗이 看護를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하다라는 信念을 근거로 하고 있다. 文化看護란 文化 또는 上位文化的 健康과 돌봄에 대한 價値, 信念, 行爲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文化集團의 돌봄요구를 이해하고 돕는 看護로서, 對象者의 總體的 看護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Leininger는 看護가 前文職으로서 社會의 存在를 정당화하는데 돌봄 행위가 결정적인 價値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比較文化的인 側面에서 돌봄행위와 돌봄 지식을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다.

看護師에게 돌봄 현상에 대한 깊은 탐색을 촉구하기 위하여 Leininger(1981)가 제시한 假定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것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人間의 돌봄은 普遍的인 現象이다. 그러나 돌봄에 대한 表現, 過程, 類型은 文化에 따라 다양하다.
2. 돌봄의 行爲와 過程은 人間 成長發達과 生存을 위해 필수적이다.
3. 돌봄의 行爲와 機能은 該當 文化的 社會 構造의 特性에 따라 다양하다.
4. 普遍的이고 特殊한 民俗의 및 專門의 돌봄의 行爲, 信念, 實務에 대한 확인은 간호지식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

위의 假定에서도 지적되었듯이 健康官吏體系는 比較文化的인 觀點에서 두 종류로 구분된다. 즉 民間 健康管理體系 혹은 土着 健康管理體系(folk or indigeneous health care system)와 專門 健康管理體系(professional health care system)가 그것이다.

民間 健康管理體系는 專門 體系가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에게 健康管理를 제공해 왔다. 이처럼 오랫동안 존속해 온 民間 體系는 민간 돌봄을 대표하며 民間 醫療, 民間 健康管理, 家庭治療 및 기타 健康 價行 등을 포함한다. 물론 專門 健康管理者와는 달리 民間 健康管理者들은 오늘날과 같은 정식 교육과정을 밟아 준비된 사람들은 아니나, 이들이 사용한 치료양식의 효율성이 검증되어 왔으며 어떤 문화에서는 아직도 민간에 대한 돌봄제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의 專門體系가 사람들의 健康管理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못할 때 民間體系가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 또한 民間體系는 환자가 專門體系의 혜택을 받기전에 일차적인 도움의 출처로 이용된다(Leininger, 1978). 따라서 民間 健康管理體系의 存在를 부정하거나 과거 및 현재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民間體系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부당하고 원시적이며 엉터리라거나, 미신적 또는 마술적이라고 매도해 버릴 때 專門人들은 專門體系와의 연계를 제공하는 수단을 놓쳐 버리고, 사람들의 가치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Leininger(1988)는 농촌 지역의 민간 돌봄을 10개 文化圈에서 比較研究한 결과 對象者의 민간 돌봄 행위, 신념이 때로는 專門職 看護의 신념과 행위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윤순영(1979)도 경기도 수동면 지역에서 현대 의학 집단과 농촌 주민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解産과 孕胎에 관한 현대 의학의 개념과 농촌의 전통적 개념은 부합되지 않으며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아마 다른 어떤 연구 분야보다 넓은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현대 의료 전문가들이 傳統醫療를 연구할 수 있다면 왜 농촌주민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구대상 지역의 주민이 土着醫療를 더 많이 활용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土着 醫療業者는 주민과 함께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일부는 시간제 농부에 속한다. 이는 치료자와 피치료자 사이에 문화적 거리가 매우 적다는 의미이며 피치료자가 쉽게 특수 의학 문제에 관한 깊은 지식을 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民間醫療에서의 질병의 진단, 병원화, 치료법은 의식에 심층된 상징적 사치를 지니고 있으나 農村 民間醫療文化의 일부라는 점이다. 용어 역시 현대 의학적 언어보다 더 상징적 친근성을 주기 때문이며, 셋째 傳統醫療制度가 韓國 農村社會의 경제발전단계에 더 잘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런 한 문화집단을 돌봄에 있어서 健康 專門人의

목적은 우선 그 집단의 문화적 가치, 우선순위 및 특성을 확인한 다음, 그 문화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Leininger, 1978). 그런데 한 가지 문제시 할 사실은 우리의 토착개념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理論을 정형화한 마는 없다는 점이다. 서구적 준거로 우리의 看護를 연구함으로써 실상을 그릇 인식할 수도 있다.

또한 文化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점에서 文化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 즉 무엇이 과연 지나간 시대의 것으로 극복되어야 하며, 또 무엇이 유지되고 진작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대답하기는 어렵다. 과거의 것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비판, 무조건적 숭상을 피하는 문제, 자기 것(自民族)에 대한 지나친 고집이나 외국 것에 대한 지나친 숭상 하는 문제, 과거를 어떻게 현재의 지침으로 현재를 과거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專門職의 가치 규범, 民間의 가치 규범간의 조화 문제, 외래의 理論을 어떻게 우리의 바탕위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전통적인 돌봄 연구를 통해 기초토대를 다지는 일이라 생각되며, 그러한 관점에서 몇 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방매륜(1984)은 出産의 전 과정에 관한 韓國의 傳統文化는 무엇이며 이러한 傳統文化가 모유수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 연구에서 韓國의 傳統의인 出産文化에 기반을 둔 出産의 全過程을 통한 看護는, 家族을 포함한 對象者에 의해 서구적인 醫療行爲에 기반을 둔 看護보다 더 받아들여질 수 있고 만족한 것으로서 지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돌봄 유형은 文化圈에 따라 다를 뿐아니라 專門 看護와 民間의 돌봄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민간 돌봄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평가하여 專門 看護에 활용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은 누가, 누구를 對象으로 제공하였는가? 여성이 항상 主 돌봄 提供者였는가? 돌봄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었는가? 그 속에 내포된 意味는 무엇인가? 어떤 原則하에서 돌봄이 제공되었는가? 돌봄 행위는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根據를 가지고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추구되어야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對象者의 文化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보다 개별적이고 질적인 看護를 제공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 Ⅲ. 研究方法 및 節次

#### A. 研究者의 訓練

돌봄에 대한 다각적 시각을 갖기 위하여 1989년 10월에 人類學 教授 1인, 成人看護學教授 1인, 精神看護學教授 1인, 地域社會看護學 教授 1인, 成人看護學教室 研究員 1인 및 成人看護學 專攻 碩士過程生 1인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연구팀 전원은 1989년 10월부터 1990년 1월 13일까지 돌봄을 문화적 측면에서 깊이 파악하기 위하여 研究接近法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을 하였다.

훈련 내용은 深層 面接方法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학습과 토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토의 내용은 실제 연구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방법론상의 문제들이었으며, 현지조사 경험이 풍부한 醫療人類學者와 人類學 博士過程生이 함께 참여하였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 現地調査 訓練을 위하여 1989년 12월 24일부터 1990년 1월 6일까지 경기지역과 경상도지역내에서 患者와 一般人을 對象으로 生의 고비상황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때 녹음된 자료와 메모내용을 기초로 面接과 觀察技術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民俗科學의 研究方法를 익혔다.

이를 토대로 하여 실제 연구를 위한 現地調査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 B. 現地調査

##### 1. 對象地域의 社會文化的 背景

現地調査에서 흔히 제기되는 문제는 調査者가 그 지역과 어떻게 관련을 맺을 것인가이다. 특히 血緣이나 地緣에 대한 집착이 강한 韓國人의 특성상 아무 연고도 없는 調査者라면 지역주민들로 부터 外部人으로서 배척될 우려가 있어 調査者는 많은 행동제약을 받게 되고 자료를 깊고 충분하게 수집하는데 결림들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쉽게 지역주민과 융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다 더 큰 과제는 급격한 현대 문물의 확산으로 우리의 土俗文化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감안한다면 가능한 傳統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지역을 찾는 것이었다.

이 두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자 1인의 연고지로 비교적 傳統이 잘 보존되었다고 생각되는 노봉 부락을 선정하였다. 노봉(露峰)이라는 마을의 명칭은 이 마을이

산봉우리가 들어난 곳에 위치했다 하여 붙여졌다고도 하고 마을의 위치가 높아 이슬이 맺히는 산봉우리라 하여 붙여졌다고도 한다. 이 부락은 지리산을 마주 보고 자리잡은 농촌마을로 南原에서 춘향이 고개를 지나 북서 방향으로 4km 거리에 위치하며 부락에서 2km 떨어진 서도까지만 정기 버스노선이 닿아 외부와의 접촉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 행정상 전라북도 남원군 사매면 서도리에 속한다. 이 마을이 위치상 인근 부락 중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書院이 있었던 관계로 품격이 높아 행정상 1번지라는데 대해 마을 주민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을이 형성된 뚜렷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숙종대왕 당시 현감을 지냈던 편재공의 11대 중부가 家門을 지키고 있으며 마을의 대소사가 이 家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을은 총 52가구로, 크게 원(元)뜸, 중(中)뜸, 아래뜸으로 나누어진다. 원뜸이라는 이름은 과거에 원님이 살았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도 하고 마을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졌다고도 한다. 앞서의 宗家 대문 앞에서부터 마을길이 시작되고 원뜸은 마을길을 중심으로 좌측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과거에 두 兩班 家門이 살고 있었다. 현재는 이 兩班 家門의 친·인척들과 일부 외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한편 원뜸의 친척 중 일부는 아래뜸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중뜸은 길 우측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노들이 살던 지역이라서 중뜸이라고 명명되었으며, 지금은 자작농이 살고 있고 10가구 미만으로 세 지역 중 가장 규모가 작았다. 아래뜸은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30가구가 넘는 가장 큰 마을로 과거에 常民(아래짓)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외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타성반이)이 살고 있다. 아래뜸과 중뜸은 개울로 경계지어져 있어 다리로 연결되고, 원뜸과 아래뜸은 절벽으로 가로 막혀 있다. 이 마을은 6·25전까지 5성이 살고 있었으며 姓氏에 따라 兩班, 中奴, 常民으로 階級이 나누어졌다. 현재는 다소 변경이 있으나 아직도 崔氏가 가장 많고 그의 金, 許, 朴, 李, 車氏가 살고 있고 같은 성들은 대부분이 친·인척이 되는 同族마을이다. 지리적 특성과 친척간의 유대가 강한 탓에 이 세 지역간에는 왕래가 뜸했고 아직도 원뜸의 친인척들만이 里長을 지내고 있어, 傳統의 兩班이 우세한 부락이다. 물론 오늘날 班常階級이 외형상으로는 자취를 감추었으나 주민들의 의식속에 잔재해 있으며, “論議”부문에서 후술되듯이 과거의 階級간의 엄격한 구별이 돌봄의 행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의 生業은 주로 農業으로 1가구당 평균 15마지기  
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고 44가구가 벼농사를 짓고 있  
다. 주요 발작물은 고추와 담배이고 최근들어 1가구에서  
약초를 재배하고 있다. 부업으로 닭, 염소, 개 등을 기르  
고 있으며 농한기에는 도시로 나가 노동일을 하기도  
하고 산에서 약초나 버섯 등을 채취하여 부수입을 얻고  
있다.

家屋의 形態는 양옥이 1가구 있고 나머지는 모두 한옥  
으로 원뿔의 처지붕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가집이었던  
것을 70년대말에 기와를 얹었다고 한다. 家屋의 構造는  
대부분 안채와 사랑채, 광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뿔에  
1가구만 兩班 家屋構造를 보존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庶民 家屋構造이었다.

마을 주민의 수나 연령분포는 유의하여 파악하지 않았  
는데 300명 미만으로 대체로 다른 농촌과 같이 노령화  
현상이 있어 마을주민들은 농사지를 사람이나 초상이  
나도 상어를 뭇 사람이 있다고 안타까와 했다. 老人들의  
경우 자녀들이 직장을 따라 외지로 나가 老人 혼자 혹은  
老夫婦가 함께 살고 있거나 나이는 姑婦가 함께 살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3대로 구성된 家族은 드물었다. 외형  
상으로는 獨居家族 또는 核家族 形態를 이루고 있으나  
외지의 자녀들과 접촉이 잦고 같은 성씨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 실제로는 擴大家族의 성격을 띠고 있었  
다.

마을내에 상점이나 醫療機關은 없었고 가장 가까운  
醫療機關으로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서도보전진료  
소가 있다. 教育機關으로는 과거에는 肅宗大王 당시 국가  
에서 세운 賜額書院이 있었고 大院君의 書院 철폐 이후  
부터 6·25 이전까지 書堂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마을내  
에 教育機關이 없고 서도에 국민학교가 1개 있다.

과거에 원뿔 뒷쪽에 호성암이라는 절이 있었으나 6  
·25 당시 화재로 폐쇄되었다. 마을내에는 무당이나 점장  
이는 없고 현재 아래뜰에 교회가 두곳 있어 마을 주민의  
일부가 基督教을 믿고 있으나 교인들도 제사 등 儒敎的  
慣習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佛教, 土俗信仰 등이 주민들  
의 思考와 行動속에 어우러져 있었다. 이는 교회를 다니  
고 있는 한 老人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잘 나타나 있다.

자식 잘 되는 것은 선영 덕이야. 다 뭇바람이야. 그러나  
되를 잘써야 해. 밥 잘 먹는 것은 하나님 덕이지. 그지개  
야[그때는] 아프면 점보러 가지. 안 사람[점장이]한테,  
그래 막 비비고, 요즘이사 교회가 생겨 안 가지. 아프면  
교회에 가지. 그래 저건네 할마이 하나가 그렇게 막 아파

싸. 아파싸서 막 뭐다 뭐다 해보고 안되사 인자 교회에다  
받치고 그래고 안 되야. 그래 이제 절에다 받쳐 요새  
(아래뜰 전주 이씨, 78세).

## 2. 研究對象者

研究對象者는 이 마을의 토착민으로서 3대 이상 大家  
族을 이루고 살았던 경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과거경험을 비교적 잘 기억해낼 수 있는 老人들로 구성  
되었다. 보조자료는 현재 마을 里長과 과거 里長들 및  
기타 40-50대 마을 주민으로부터 획득되었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面接을 실시한 對象者  
는 10명으로, 이중 남자가 1명이고 나머지 9명은 여자  
노인이었다. 이는 마을에 고령 남자 노인이 적고 접근을  
시도한 두명중 중뿔에 사는 1명은 面接을 기피하여 집중  
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研究對象者  
10명의 一般의 特性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별  
로는 아래뜰이 5명, 중뿔 1명, 원뿔 4명이었고, 이중 남자  
가 1명, 여자가 9명이었으며, 연령은 90대가 1명, 80대  
3명, 70대 6명이 있었다. 對象者 모두 現代 教育機關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었고 書堂이나 家庭에서 한문  
또는 한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人權 保護를 위하여 研究對象者는 ‘ㄱ’에서  
‘ㅈ’까지로, 보조자료 제공자는 ‘ㅋ’으로 표기한다.

## 3. 資料蒐集

現地調査를 하기전에 마을의 里長과 원뿔 宗家에서  
연구 취지와 現地調査 계획을 통보하여 승낙을 얻었다.  
원뿔 宗家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을의 老人들과  
과거의 里長들에게 조사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현 里長은 군청을 방문하여 마을에 관한  
행정적 자료를 확인하는 등 배려해 주었다. 現地調査는  
1990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실시하였  
다.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研究者들은 2명씩  
한조를 이루었다. 面接 중 한 사람은 주로 질문을 통해  
자료를 이끌어냈고 다른 한 사람은 觀察을하면서 현지노  
트를 작성하였다. 年老하여 거동이 불편한 對象者는 처음  
부터 研究者가 對象者의 집을 방문하였고, 거동이 자유로  
운 경우는 研究者들이 머무는 집의 사랑방이나 안방에서  
3-4명씩 모여 面接하였다. 이 方法은 對象者 상호간에  
기억을 자극해 줄 수 있고 面接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으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  
다. 集團 面接 후 각 對象者를 개별 방문하여 좀 더 개인  
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수집하였다.

첫 面接시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面接과 녹음에 대해 승락을 얻었다. 家族의 出生, 死亡, 疾病과 같은 상황 그리고 老人과 女子를 돌보던 研究對象者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父母나 租父母의 행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觀察 內容은 메모하고 面接 內容은 녹음하였다. 面接時間은 1일 30분에서 5시간 이상까지 다양하였으며, 面接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老人의 체력을 고려하여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졌다. 面接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졌다. 한 代價者에게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할 때까지 反復 面接하였으나, 對象者 개인의 사정으로 1회만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매일 조사가 끝난 후 약 1시간 정도는 그 날의 面接과 觀察에 대해 분석 평가하고 다음 날의 조사 내용 및 접근방법들을 계획하였다.

對象者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한 研究者가 계속해서 동일한 對象者를 만났다. 물론 研究者의 연고지이므로 對象者와 쉽게 접촉할 수는 있었으나 몇가지 주의를 기울였다. 첫 방문시 마을 주민과 동행하였으며 예의를 갖춰 절을 드리고 통성명을 한 뒤 연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들었다. 마을 주민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고 우리의 신분을 밝혔다. 또한 面接對象者가 모두 老人이었으므로 호칭에 유의하였는데 老人의 연고지나 그 家門의 과거 벼슬에 따라 宅號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할머니”등으로 칭하여 친밀감을 나타내면서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미리 연락이 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은 研究者들을 마을 손님이나 친척처럼 대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어려움은 없었으나 타성지역 주민들은 경계심을 보였다.

#### C. 資料의 整理

자료 정리의 첫 작업으로 面接者가 녹음된 자료 내용을 그대로 모두 필사하였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面接을 실시했던 研究者 두명이 함께 녹음된 내용을 듣고 기록하였다. 이때 사투리는 그대로 기록하였고 觀察 內容은 現地調査 노트와 비교하면서 面接 內容 중간 중간 해당되는 곳에 삽입하였다. 記錄資料는 대상자별로 면접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여 基礎資料集으로 한데 묶었다.

研究者 각자가 이 基礎資料集을 읽고 돌봄과 관련된 내용에 밑줄을 그어 표시한 후 6명 모두가 동의한 陳述

內容만을 채택하여 각각의 내용을 카드에 작성하였다. 각 카드의 기록된 陳述 內容을 다시 분석하여 돌봄에 관한 용어를 추출하였다.

다음 단계로 추출된 용어가 갖는 意味를 파악하여 命名하였다. 命名을 함에 있어서 사투리는 그 지역 사투리에 익숙한 研究者와 그 지역 출신의 國文學 專攻者가 그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標準語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그리고 각 개념을 유사한 屬性을 가진 것끼리 묶어 範疇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人類學者 1인과 國語學者 1인 및 연구 지역 출신의 國文學 專攻者 1인에게 의뢰하여 概念과 範疇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 資料 중 出生에 관한 돌봄 경험과 관련된 것만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이때 사투리는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사투리는 標準語로 고쳐 각괄호[ ] 속에 삽입하였다.

#### IV. 研究 結果 및 論議

본장에서는(출생과 관련된 돌봄에 대한) 대상자의 진술을 가능한 그대로 제시하고 이 진술을 토대로 돌봄 제공자, 대상자, 돌봄행위 유형과 돌봄의 구성요소를 이끌어 낼 것이다. 출생과 관련된 돌봄이 단순히 해산 당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잉태이전부터 시작하여 해산후까지 연결되므로 우선 해산전, 해산시, 해산후의 세 시기별로 나누고 다시 각 시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A. 解産前 돌봄

韓國民族은 同族保存과 그 繼承에 대한 人間의 本能과 死後 子孫의 奉養을 받아야 영혼이 편안하다는 死生觀으로 인해 子孫을 중요시하였다(박대복, 1987). 이 사실은 「朝鮮女俗考」의 다음과 같은 귀절에서도 입증된다. 즉 “우리 조선 사람은 딸을 이어 낳지 않고 아들만 이어 낳고자 한다. 남자로서 아들이 없으면 不孝라 해서 축첩을 하여 家道를 허물어뜨리는 일도 있다. 여자로서 아들을 못 낳으면 病이라 하였고, 심지어는 七去의 한 조목으로까지 쳤으며, 세계에서 사속관념이 가장 강한 것이 우리 조선 사람이다. 그 까닭을 집작컨대, 儒敎의 根本崇尚 제도를 본받아 祖上을 공경하여, 분향하며 제사지내는 일을 높이 친 때문이었다” 이처럼 韓國의 傳統社會에서는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 주는 것을 으뜸의 孝로 삼았으

므로, 解産은 여성 개인의 일이기에 앞서 家門의 경사였으며 성스러운 사건으로 신성시하였고 祖上에 대한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으로 생각하는 의식구조가 굳어 있어 (김성배, 1980) 孕胎와 解産에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행해졌다고 본다.

解産前에는 孕胎를 위한 努力, 胎夢, 孕胎, 胎敎 및 解産 準備時의 돌봄이 있다.

### 1. 孕胎를 위한 努力

孕胎는 다음과 같은 본 研究對象者의 진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삼신 등 超越의인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신이 있음게 애기도 낳고, 그냥은 못 낳아. 선영이서 잘 돌보고...(아래뜬, ㅅ 할머니)”

“(애가 나올 때) 영이 들어가서 배짖에 나오면서 우는 소리가 난다(원똥, ㄹ 할머니)”

孕胎를 위한 努力으로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不妊이나 또는 初産이 늦을 경우에 행하는 가임을 위한 돌봄행위들이다.

“애기 늦는다고 어른들이 야단이야, 약하고. 애기를 늦게 난다고 모다 어른들이 수물양반, 구영주를 해 줘야 한다고 해싸. 그런데 그러데 누가, 애기를 못 나서 건대구 하나 삶아 먹고 낳다고. 애기를 너무 안 난게 시모가 예식장에 가서 명태 갖다가 삶아 주드만. 그 놈을 삶아 먹고 나니까 그 속에 요만한 돌이 있는데, 옳다 이것이 우리 강아지 봉알이다, 이거 내버리지 말라고 그런 기억이 나. 그런데 딸 먼저 낳았어.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봉알이 됐을 텐디. 그래서 그런가 애가 있더니만 딸 낳고 그 다음 아들 낳고. 그래 갖구 8남매 낳어(원똥, ㄹ 할머니)”

“옛날에는 아들 나라고 뭐 작두 같은 거 해서 찬다고, 쪼그란 것. 애 여기다(배를 기리킴)(아래뜬, ㅅ 할머니)”

“요것은 일년만 정성스럽게 하면(경문 외우기) 아들이요. 受胎되요. 아들을 나아(중똥, 허씨)”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對象者의 경우 孕胎를 위한 努力은 크게 孕胎가 가능하도록 夫婦의 身體의 條件을 準備하는 行爲와 인간 외적인 힘을 이용하려는 象徵의 行爲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행위로 남자에게는 구영주라는 陽氣를 補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한편,

여자에게는 약과 음식을 통해 몸을 補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여자에게 특별한 음식을 먹도록 하거나 사물을 몸에 지니는 등 象徵의인 行爲와 經文을 외워 특정종교의 神에게 祈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중 가임을 위해 약이나 음식을 통하여 몸을 補하는 전자의 방법은 「東醫寶鑑」과 「朝鮮女俗考」에 의거해 불매 不妊은 주로 여성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약이나 음식을 통해 혈기를 補하고 經度를 조절케 하였으며, 남자에게는 陽氣를 補陽할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상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후자의 행위는 매우 오랜 유래를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자녀를 解産하는 것이 혼인을 한 여자의 의무이며, 소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혼인의 목적은 자녀를 解産하는 것이며, 아들을 解産하여 집을 계승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한지 수년이 지나도 자녀를 解産하지 못하거나 딸만 연이어 낳게 되면 부인은 물론 온 집안의 집안의 근심이 되므로 아이를 낳기 위한 祈子行爲를 하는데, 祈子의 對象物과 場所에 따라 祈子의 方法과 祭物 등이 다르다 (이광규, 1985)고 한다. 본 자료에서는 일정한 對象物을 정하여 남다른 致誠을 다하여 受胎하려는 致誠祈子 行爲와, 특별한 음식을 먹도록 하거나 사물을 몸에 지니는 등 象徵의인 行爲를 통해 孕胎하기를 祈願한 呪術祈子는 孕胎를 주관하는 超越의인 對象에게 지성으로 경문을 외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기에 대한 소망을 전달하므로서 孕胎하고자 하는 것이다. 呪術祈子를 하는 경우, 특정 事物들이 갖는 영감을 전염받아 아기를 孕胎하여 보자는 것이다(이광규, 1985). 이는 물건이 타부인 경우에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금지된 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든지 파멸시킨다든지 하는 신비한 에너지를 그 물건이 지니고 있다 (박규홍, 1983, 장장식, 1984)고 볼 때, 역으로 그 물건을 먹거나 만지거나 함으로서 물건이 지니고 있는 신비한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도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對象者는 혼인식장에 가서 명태를 가져다가 삶아 먹고 그 명태에서 나온 돌(?)을 몸에 지니므로서 受胎하고자 하였다. 이는 혼례란 解産을 전제로 한 신성한 의례이고 따라서 혼례시 大禮床에 올린 음식은 孕胎를 위한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으리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아들을 소망하여 남아의 음낭을 상징하는 돌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祈子行爲의 주체자는 상고시대 이래로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왕이나 남편에서 부녀자로 변화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본인은 물론 집안이나 이웃

어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였다. 아무튼 우리나라와 같이 혼인의 목적이 자녀를 解産하는데 있고 이들이 집을 계승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傳統社會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들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祈子를 하였던 것으로(이광규, 1985) 보이며,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돌봄을 엿볼 수 있다.

解産前의 돌봄은 또한 孕胎를 위한 夫婦의 交合에서도 볼 수 있다. 夫婦交合의吉日을 택하는 것은 다음의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어머니의 소관이었다.

“그직[그매]에는 왜 시어머니가 날을 잡아서 아들들며느리방에 들어 보내. 아들 短命한다고, 오래 살으라고(원뎡, ㄱ 할머니)”

“아 시어마이가 사아바이게 시켰어. 우리 어마이가 서모요,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서모라서 그러다고 시켰어 시아바이께. 그래 시아바이가 일도 못하는 것이 아들들몰만 뻔다고 그래(아래뎡, ㅂ 할머니)”

이처럼 夫婦의 交合을 절제하고吉日을 잡는 것은 「東醫寶鑑」(잡병편, 10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월경이 운행한 뒤 1,3,5일에 交合하면 남자가 되고, 2,4,6일에 交合하면 여자가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受胎하지 못하는 법이다. 단 子時後에 交合하여야 한다”라고 記錄되어 있다. 또한 夫婦交合의 날을 정하고 交合을 절제하는데도 여러가지 목적이 있는데, 「東醫寶鑑」(잡병편, 10권)에 따르면, “사람이 사는 길이 자식을 낳는데서 시작되고 자식을 낳는 일은... 남자의 神이 부족한 것을 요구하며 또 感心이 적으면 神이 완전하여 자식을 많이 줄 뿐 아니라 또한 年壽도 많아지는 법이다” “부인이 먼저 난 아이가 보행하기 전에 다시 孕胎하여 그 아기에 게 젖을 먹이면 발병이 되어 누렇게 여위며 빠지고... 夫婦가 악귀를 인도하여 그의 뱃속에 들어가면 소아는 질투하여 이 병이 나게 하나니”(잡병편, 11권) “또한 丙, 丁日과 보름, 초하루, ㄱ름, 일 월식 등 특정일과, 극심한 더위, 추위, 우뢰나 비 등 일기가 불순한 때, 火光의 밀, 불당, 우물이 있는 곳 등 특정 지역에서의 交合을 피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번갯을 경우 병이 많고 단수하며 각종 불구가 된다고 하였으며 胎兒가 性行이 凶險하다”(잡병편, 10권)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夫婦交合日을 정하는 것은 孕胎에 적합한 날짜를 맞추어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해, 아들을 낳기 위해, 健康한 아이를 낳기 위해, 남자의 健康을 보호하고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

자녀의 터울을 조절하여 孕婦와 어린 자녀의 健康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진술을 보자.

“남자들이 금방, 어제까지도 괜찮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졸지에 떨어지고 하면은 수분내로 죽는 거. 제가 알기로는 주로 양감이라고 세칭 그랬고 성을 욕망을 못이기고 병으로 되었다 그러지요. 아, 양감으로 떨어졌다고 하지요(원뎡, 석재아재)”

“健康은 뭐, 오래 살기는... 아이 뭐 외입을 안 허여 그렇게. 병 걸린다고, 젊어서 외입을 해싸면 병을. 죽은 다음에도 병이 걸린다고... (원뎡 일가, ㄷ 할아버지)”

본 조사에서 시어머니가吉日 이외에는 夫婦交合을 절제하고 금하도록 한 것은 다른 어떠한 이유보다도 남자의 健康을 보호하고 壽命을 길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禁忌를 어겼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健康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진다.

## 2. 胎夢

이렇듯 夫婦의 노력과 家族의 돌봄을 통해 孕胎가 된 후에는 孕胎를 지속하고 健康한 아기를 낳기 위해 胎兒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孕胎의 與否가 확인되어야 한다. 孕胎 與否를 알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胎夢이다.

胎夢은 懷胎說夢을 말하는 것으로, 孕胎의 징조가 꿈으로 꾸며진 것이다(이능화, 1926). 胎夢說話에도 나타나듯이 胎夢은 상고시대로 부디 유래되었다. 이는 人間은 孕胎부터 초자연적인 신비의 세계와 관련을 지닌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解産을 신성시하는 관념에서 유래되어 오늘날까지 민간에 전승되어 믿어지고 있다(박대복, 1987). 중국과 한국의 고전, 고시에도 영웅과 성인의 胎夢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朝鮮女俗考」에서도 부인에게 胎夢이 많다고 명시되고 있음을 볼 때 胎夢은 孕胎와 관련된 중요한 경험인에 틀림없다. 본 조사에서는 對象者들이 胎夢을 꾸지 않았거나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해 내지 못하였으나, 특이한 경우에만 기억을 하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난 胎夢도 별스럽게 꾸지 않아. 호동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인제 딸을 낳는데 잘 살 것이라 그래. 어찌코



름 그리냐고 한게. 봉천서 말을 갖고 왔는데 우리 가운데 기둥에다 매 났는데 짐을 많이 실어서 딱 매놓고 곱게 꾸몄드레, 말을. 그러콧 딸을 낳을 것이라고(원뎡, ㄱ 할머니)”

胎夢은 모든 사람들이 매 孕胎마다 孕胎를 전후해서 꾸는 것은 아니며, 胎夢을 꾸는 사람도 본인이나 家族 또는 가까운 이웃 등 다양할 수 있다. 본 調査 對象者의 경우는 孕胎전에 이웃이 胎夢을 꾸어주었다는 사실은 우리 文化에서 孕胎에 대한 이웃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胎夢에는 아들胎夢과 딸胎夢이 있으며 (이선숙, 임옥재, 1988), 「朝鮮女俗考」에 보면 “길몽이 무엇인고, 어른이 점쳐 보니 곱과 큰 곱은 사내아이의 상이요, 뱀이나 독사뱀은 계집아이의 상이니, 아들 낳아 弄璋(높은 벼슬을 하여 笏을 지님)시키고 딸을 낳아 弄瓦(요조한 숙녀가 되어 실패를 지님)시키네”라고 되어 있듯이 胎夢은 孕胎에 대한 예언은 물론이고 장차 태어날 아기의 性, 性品 및 生의 吉凶禍福까지도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태어날 아이의 性을 알려 준다는 것은 母體가 胎中에서부터 性別에 맞게 胎教를 시키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본 자료에서의 胎夢은 子孫이 귀한 家門의 孕胎 사실, 신생아의 性別 및 吉한 將來를 알려주므로서, 이웃이 관심을 가지고 장래의 孕婦에게 德談을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產前 돌봄을 예비하도록 하는 중요한 돌봄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孕胎

孕胎는 대부분 자각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다.

“애기가 생긴 줄은 모르겠어 아무 상도, 정도가 없는 거는 알지마는(원뎡, ㄴ 할머니)”

“둘째 애기 때도 나는 입덧이 넘들 모양으로 뭐시 먹고 잡고 안해 봤어. 그대로 뭐 먹고 잡고 먹기 싫고. 처음에 설 때에 계명년 거시기라 서두 밥이 먹기 싫어서 그랬지. 나중에는 그런지도 저리지도 모르고 남들 애기 선다고 거시기를 안했당개. 못 먹어보들 안했어. 그때 세상은 애기선다고 누가 뭐를 주어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자도 [싫어도] 미역국 한 그릇 못 먹었구만 뭐(아래뎡, ㄹ 할머니)”

“한 다섯 달이나 된가 여섯 달이나 된가 애기가 논 것이… (아래뎡, ㅈ 할머니)”

孕胎사실은 무월경과 오조, 태동이 느껴지는 것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위 對象者의 진술에 나타나 있듯이 孕胎시에 家族이나 이웃의 보살핌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음의 對象者처럼 解產 直前까지도 알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냥 몰라. 뭐 몽시같은 줄 알고. 뭐 몽신가… 날라서 [낳아야] 알지… 날이 갈수록 배가 아프더니만 날이 갈수록 배가 더 아프다. 아이고 날이갓도 배가 아프냐. 별일이다. 애기 날란지를 몰라. 배는 아퍼 죽겠네, 나 약 한침 지어다 뉘. 죽는다고서 돌아다니게. 허리가 아픈 게 곱짜를 못 하겠더구만. 배가 아퍼서 들락 날락… 어쩐지 칙칙해, 보니 어때 몸에 것(월경)이 터진 줄 알고, 아이구 인자 옷을 벗어서 얼른 갖다 빨았지. 우시는 다 하겠다 인자. 애기가 몸에 것이 터졌는지… 금께 나중엔 생각하니께 애기 돌릴라 하는 것 그런 걸. 나중엔 쉽게 돌아 낳는데. 처음에 그랬당개, 왜 날이 가다락 이놈의 배가 더 아프고. 그랬더니 애기 날라고 그렇게 아팠당개 (아래뎡, ㄹ 할머니)”

위 對象者의 경우 본 장의 “解產後 돌봄” 부분에서 후술되듯이 解產後에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신생아가 3일만에 사망하였다. 연구대상자 본인은 상주 집에서 첫국밥을 해다 준 것을 먹고 不淨을 타서 즉, 禁忌를 어겨서 아이가 사망하였다고 빠고 있지만, 이는 孕胎 사실을 모른 연유로 解產前 管理가 소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녀 두기를 지극히 원하는 것에 비해 孕胎 사실을 家族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는 드물었고 家族은 대부분 간접적인 암시 또는 저절로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수집어서 애기 못해, 애 뱃단 말도 애 섰단 말도. 몇 제 때언가 자꾸 앓는 소리가 안나? 뉘 싹 얹어 놓고 앓는 소리가 나니께 그제 제한는갑만 소금이나 좀 갖다 먹으라 그래. 체하지 않았어. 체한건 아니여. 체한 병 아니여 그런게 ‘아구 심란스러라 아구 심난스러가’ 인제 알았어. ‘아구 심란스러라’ 그래 안 혀(아래뎡, ㄹ 할머니)”

“그전에는 인자 각기 사는 사람이 애기 나면 언제 날지 모르지만 한집에서 살면 날줄은 알지. 언제 날 줄은 모르지(원뎡, ㄱ 할머니)”

“그때는 뭐 얼마나 애기를 하나, 애 갖었다고. 몇 제 애 었던가, 설 시고 제사가 있었어. 깨를 그렇게 많이

짜왔더니 '자주 짜다 먹지 뭐하러 그렇게 많이 짜 왔냐고' 그러. 그래, 설 시고 내가 조금 쓸라고, 애 낳고 짜다 먹지 그랬지 그렇게 '아구 심난스럽다'고 그래(원뚝, ㄹ 할머니)"

이는 對象者의 진술처럼 孕胎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夫婦 之間에 대화의 거의 없었고 儒敎의 影響으로 어떤 감정이나 사실을 직접 표현하기 보다는 표현을 절제하거나 은밀하게 표현하는 경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 文化에서는 남녀가 유별하여 남편이 부인을 위하는 행위를 겉으로 표현할 때 주위사람들로 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孕婦의 변에서 孕胎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서 解産前 管理를 위해 주변 사람들 특히, 남편의 돌봄을 받지 못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말의 呪術力이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孕胎를 지속하기 위해 그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는 행위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기타, 본 조사에서는 老産의 걱정으로 解産을 망설이면서 이웃에게 의논했을 때 조언을 통해 孕婦를 보호하는 이웃의 돌봄행위도 볼 수 있었다.

"이 우리 막둥이 난 애기 한번 해복까? 마흔 여섯에 낳어. 그 때 인제 애기가 있는 것 같여. 수물데한테 가서 어이 난 태기가 있는 것 같여. 떠어 부릴라네, 그랬어. 서너달 됐어. 그랬더니 짹 짹 놀라면서 돈들고 사람 까딱 하면 큰일나네 그러, 말려(원뚝, ㄹ 할머니)"

#### 4. 胎敎

우리 文化에서는 일찌기부터 배속의 胎兒를 하나의 人間으로 간주하였기로, 解産前의 돌봄으로 胎敎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胎敎를 한다고 하지만, 겉에 사람이 알게 어찌코롬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마음 속으로만 하제. 어른들 제시고 여러 사람들 거시게 하고 사는데 胎敎하고 나타나게 하면 안되제. 내 마음으로만 이것은 안할 일이다. 말이 아닌 말은 듣지 말고, 자리 같은 걸 틀어지지 않게 앉고, 그런 소리를 항상 들어 쓰면 내 마음에 그러코롬 한다 하고 그런 것이제. 태중에 뭐 틀어지게 앉도 말라. 틀어진 것은 먹도 말라. 취서든지 만듯하고 정당한 말만 듣고 말갈지 않은 소리 귀담아 듣지 말라고 항상 들어 쓰게. 겉에 사람 알게 어찌코롬 그렇게 하겠소. 자기 마음에 항상 조심을 하는 것이제(원뚝, ㄹ 할머니)"

대국어사전(이승년 등, 1982)에 의하면 胎敎란 '夫婦가 胎兒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언행, 마음, 감정 등을 정화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그것의 중요성과 지켜야 할 내용은 「東醫寶鑑」, 「閨閣叢書」, 「聖學輯要」, 「戒女書」, 「小學」등의 문헌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

진술한바 있듯이 子息이란 존재가 傳統社會의 절대적 가치였으니만치, 孕胎의 중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하여도 오히려 부족하고, 따라서 胎敎 역시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게 생각지 않았다. 「東醫寶鑑」(잡병편, 10권)에 따르면 孕胎하기 위해서 먼저 母體와 父體는 心身의 정상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하여 모친 뿐 아니라 부친의 胎敎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 사료에서는 母體의 胎敎에 대한 사항만이 나타났다. 특히 모친의 胎敎가 중요한 것은 태중 10개월을 모친에게 의지하고 자라며, 그러므로 대체로 자식이 모친을 닮게 되므로 보통사람으로서의 행하기 힘든 행동을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친의 胎敎 如何가 대중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思考에서 보다 엄격한 胎敎實踐과 까다로운 胎敎內容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유안진, 1984).

胎敎의 내용은 孕婦의 행위와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데, 李珣의 「聖學輯要」4장 '敎子' 중 〈胎敎의 말씀〉 가운데 "옛날에는 부인이 아이를 孕胎하면 옆으로 누워 자지 아니하고 비스듬히 앉지를 아니하였으며 외발로 서지 아니하고 맛이 야릇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자른 자리가 바르지 아니한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자리가 바르지 아니하면 앉지 아니하였다... 진씨는 말하기를 '부인이 孕胎하였을 때에는 잠자는 일, 먹는 일, 앉는 일, 서는 일, 보는 일, 듣는 일,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하나같이 모두 다 올바르게만 자식을 낳으면 그 형체나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였습시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産母는 뼈투루 앉으면 不良兒를 낳는다'는 産前 禁忌 사항도 있다(임동권, 1971). 여기서 모친이 胎敎를 위하여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반듯하고 바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심을 하였다는 본 연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胎敎의 방법으로서 '補藥 등 補가 되는 좋은 음식을 먹여 孕婦와 胎兒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보다는 '행위를 禁하는 소극적 방법'(이두현, 이광규, 1973)을 택하였는데, 그러한 胎敎의 內容들은 여자에게 시집오기 이전부터 철저히 敎育하였음도 나타나 있다. 이처럼 禁忌 사항 위주의 胎敎는 産前 禁忌가 바로 敎育의 방법 그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곧 禁忌하는 것을 敎育

관으로 가졌던 朝鮮時代의 胎敎(이경복, 1979)가 오늘날 까지 저내 내러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행위의 禁忌는 對象者의 다음 진술에서 나타나듯이 孕胎 기간이 아기의 健康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든지 한 입회한지 한 몇일을 늦게 나면 애기가 튼튼하다고 한다, 나는 죄다 다 한, 일주일 앞에 낳아 (원뽀, 7 할머니)”.

孕胎 기간은 위와같이 아기의 健康 뿐 아니라 富貴와 壽命에도 관련이 있음을 東醫寶鑑(잡병편, 10권)의 “달이 지나서 나는 것은 富貴하고 壽하며 달이 차지 못하고 나는 貧賤하고 夭한다… 달이 지나서 解產하면 반드시 貴子를 낳는다”라는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좀더 구체적으로는 306-296일에 出生하는 것을 上器라 하고, 286-266일에 出生하는 것은 中器라 하며, 256-246일에 出生하는 것을 下器라 하였고 물론 상, 중, 하기에 따라 長壽와 短命이 가름된다 하였다(신재용, 1989, 정민성, 1989). 따라서 아래에 진술된 행위 禁忌를 통한 胎敎의 또다른 예인 과로를 피하는 것은 有產이나 早産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본다.

“낳고 얼른 보니까 아 꼬치야. 나놓고 보니 백옥같은 아들이네. 꼬치 낳다 하니까 시아바이가 아고 그런 것을 오늘 일을 시켰다고 그래(아래뽀, 8 할머니)”

위의 진술이 암시하고 있는 바는 궁극적으로는 孕胎 기간을 채워 태중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孕婦에게 육체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家族들의 배려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속어에 ‘아이 뻔 여자 세도 같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고, 孕胎는 곧 경사로 여겨 아무리 무서운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孕胎하면 대우가 달라졌고 아내에게 무심했던 남편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조사자료(유인진, 1984)도 있듯이, 우리의 傳統社會가 가부장제 계승윤리와 식구의 증가는 곧 노동력의 증가를 인정하였던 사회로서(손인주, 1978) 더욱 더 胎敎 실천에 주위 家族의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른 對象者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胎敎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胎敎를 중시할 수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아 그때 세상은 음식 가려 먹고 그런거 있잔디. 그냥

먹지 별로 먹지.

시방 세상은 뭐 반드시 누워 자고 배 시르고 음식도 좋은 음식만 먹고 그리여. 그때는 그때 세상에 거시기 할 적에 그런 것이 없어. 그냥 별로 먹고 별로 배시키고 별로 키우고 그러지. 그러니까 명도 짧은 놈 낳고 긴놈도 낳고 그러는가 몰러(아래뽀, 8 할머니)”.

여기서는 음식의 禁忌도 胎敎에 포함되고, 음식 禁忌가 出生兒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녀자가 孕胎를 하게 되면 胎 안에 있는 胎兒의 정상적 발육을 위하고, 또 解產 뒤 아이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올 어떤 불행한 장애를 미리 막기 위하여 產母는 부정하다고 속신된 음식물들을 먹지 않는 습속이 있다(김승찬, 허영순, 1970). 이 음식물의 禁忌도 행위의 禁忌와 마찬가지로 孕婦와 胎兒를 보호하는 소극적 방법에 속한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들 胎敎의 내용은 모두가 孕婦의 몸가짐이나 먹는 음식이 胎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어(이광규, 1985), 결국에는 健康하고 자질이 뛰어난 아기를 낳기 위한 孕婦의 끝없는 祈願과 努力이며, 한편으로는 產母의 健康을 보호하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閨閣叢書」의 胎中粧理法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무릇 아기 가진 아낙네는 옷을 너무 덥게 말고 밥을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고, 술을 너무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무거운 것을 높은 데 오르며 험한데 다니지 말고, 힘에 겨우게 일하여 과히 상하게 하지 말고, 지나치게 성내서 기운을 쓰거나 애태우지 말고, 많이 자거나 오래 누워 있지 말고, 때때로 거닐어라… 달 찬 뒤에 머리 감거나 발 씻지 말고 높은 뿔산에 오르시 말도록 이르고 있다.

아무튼 본 연구자료에 의거해 볼 때 補藥 등 좋은 음식을 먹여 孕婦와 胎兒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보다는 행위나 음식을 禁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胎敎를 실시하였고, 본인 이외에도 家族들의 배려를 통한 돌봄이 있을 수 있다. 胎敎의 내용상으로 볼 때 孕婦에 대한 行爲 禁忌는 비교적 產母를 위한 것이고, 飲食禁忌의 대부분은 產母보다 胎兒를 위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아기를 낳을 우려가 있는 것을 禁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이광규, 1985). 따라서 이 飲食이나 行爲의 禁忌는 주술적인 성격을 띠기 보다는 孕婦의 경우 음식이나 행위를 포함하여 만사에 조심하고 유의할 것을 말하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胎敎는 가정에서의 여성교육을 중시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류계층에서만

이루어진듯 하고,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여건으로 많은 기사일에 매여 있을 때는 胎敎를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며, 더우기 전술하였듯 孕胎에 대한 지식 결여로 孕胎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胎敎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5. 解産 準備

解産을 위한 準備에서도 돌봄행위가 나타난다.

우선 태어날 아기를 위한 돌봄은 다음의 진술에서처럼 신생아 옷, 기저귀 등 태어날 애기에 따른 물품을 손수 준비하였는데, 이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애기날 때 첫번째 입히는 저고리 같은 거는 집에서 해놔다 입히드만. 그 때는 뭐이 비단이 있어 뭐이 있어. 아무 것도 없으니까, 명베나 당베기나 옷으로 집에서 해놔다 입히드만. 또 그 뒤에는 모도 사다가 입히는 사람은 입힌다 그러데. 근대 우리는 그래 보덜 앉았어. 어른들이 가르쳐 줘서 다 만들어서 입혔지(원뽈, ㄴ 할머니)”

“애기 날 때 되면 옷도 있고 기저귀도 있고 그런 것 애기에 따른 거 준비하지(원뽈, ㄴ 할머니)”

그리고 産母를 위해서도 준비가 따랐다. 즉 미역을 마련하였는데, 이 미역은 解産前에는 삼시랑 床을 차리는데 그리고 解産後에는 그 미역으로 産母에게 국을 먹이는데 사용하였던 중요한 음식임을 다음의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난 둘째 아들을 제국시대, 왜정시대에 낳어. 둘째 뱃는데 시아버이가 미역을 꼭 두가닥을 받아 왔는데 모다 그러네 두가닥을 받으면 딸 난다고. 그러니 시아버니가 얼른 가서 열가닥을 더 받아 왔네(아래뽈, ㄴ 할머니)”

“삼시랑 床을 애기 기미가 있으면 딱 챙겨 놓는당께. 물 한 그릇 떠고, 床에 다다 물 한 그릇 떠놓고, 床에 다 떠놓고, 쌀, 쌀을 床에다 붓고... 삼시랑 상이라고 있어. 床에 다다 옛날 네모 床에 다다 가운데에 다다 쌀을 붓고 미역 한가닥 적 걸쳐 말하자면 미역 한가닥 적 걸쳐서 뚝뚝에다 채려 놔. 물 한그릇 여기다 떠 놓고, 이레를 놔 두고. 옛날에는 이레를 다 찾았거든. 미역을 사다가 이렇게 뚝뚝에다 딱 걸쳐 놔. 애기날 달이 돌아오면, 그랬다가 삼시랑 床에다가 한가닥 걸쳐 놓은 놈을 일주일만에 이레가 돌아 오고 이레가 돌아 오고 그러면 꼭 밥을

해서 뚝뚝에다 채려 놓거든. 이레가 돌 올 때 마당 미역 그 놈을 흰기다 걸쳐 놓은 놈을 달이는 미역을 메서 ‘끓이든, 床에 놓은 놈을 데서 끓인당께(원뽈, ㄴ 할머니)”

“삼시랑 床이란 삼신에게 제를 지내기 위해 차리는 床인데. 명칭은 지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 ‘삼시랑 상’, ‘재앙상’, ‘지앙판’, ‘삼신지앙’등 여러가지로 불리운다(이두현 등, 1983).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해석이 있지만, 이능화(1926)에 따르면 “세상에 이르기를, 護産之神이 셋 있기 때문에 삼신이라 이룬다고 하였다. 우리말로 태를 「삼」이라고 하므로 胎神은 「삼신」이다. 곧 우리말 「삼(胎)」을 숫자 「三」으로 인정하여, 胎神을 삼신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잘못 풀이한 附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삼신은 곧 胎神이라는 것이다. 포태를 관장하는 護産의 신이 곧 삼신인 것이다. 「삼신 할머니」는 삼신의 호칭이다(양재연 등, 1971). 그 제물은 보통 쌀 또는 흰밥과, 미역 또는 미역국이 주가 되고 産母의 健康과 영아의 長壽를 비는데, 이것은 「비순」한다고 한다. 「비순」은 손으로 빌면서 축문을 진술한다는 뜻이다(양재연 등, 1971). 비순하는 이유는 삼신할머니가 順産을 시켜주는 것과는 반대로 産母와 아이를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아기를 낳을 때 産母가 기르는 비명과 고통은 삼신할머니에게 귀착된다. 삼신할머니는 이처럼 도움을 주는 神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줄 수도 있는 神이므로(Guillemoz, 1975) 床을 차려 놓고 解産前, 解産時, 그리고 解産後에 걸쳐 수없이 祈願을 드리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삼시랑 床은 “儒敎의 영향보다 歷史가 더 오래인 것으로 추론되며, 삼신할머니는 祭祀의 儒式化를 꾀한 하나의 神으로서 나타나고 밥과 냉수를 올리는 것 자체가 韓國化된 佛敎의 특성이자. 결국 삼신할머니의 祭祀에 대한 佛敎의 부분적인 영향을 인정하더라도 그의 성격이 전적으로 韓國의임을 발견하게 되므로, 삼신할머니에 대한 祭祀가 佛敎의 傳來보다 시대적으로 앞서는 宗教儀禮와 信仰을 증명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고 Guillemaz는 주장하고 있다. 김태곤(1973)의 巫敎의 神觀에 관한 지적에 따르면 삼신(産神)은 원래 天神信仰으로부터 전파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解産儀禮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삼신으로, 이 삼신의 매개야말로 또한 韓國의인 關係網이 특징이라 하겠다(이광규, 1985).

본 자료에서는 삼신床에 물, 쌀, 미역을 올렸다. 이때

삼신床에 올리는 냉수는 淨化와 生繁力의 상징과 産母 苟安의 식물로 하여 삼신標識物로 삼은 것 같다(김승찬, 허영순, 1970)는 해석도 있다.

본 자료에 의거해 볼 때 삼시랑 床은 解産前부터 解産 後까지에 걸쳐 이레마다 차려 졌으며, 解産前에는 母體가 순조롭게 解産을 하도록 그리고 解産後에는 다음의 진술에 나타나 있듯이 産母가 밥을 잘 먹고 빠른 회복을 하고 젖이 잘 나와 태어난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삼신에게 祈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祈願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삼신은 孕胎와 解産에 관여하여 産母와 아기의 健康, 成長과 壽命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기 낳고 나면 ‘삼시랑 床’ 채려 놓고, 삼시랑 床을 채려가 미역을 여기다가 걸쳐 놓고 쌀 놓고 저 삼시랑 床을 채려. 미역을 떼다가 그기다 보태서 끓이지. 그 미역을 떼다가 다른 거랑 보태서 끓이는 구만, 이레를 놔두고. 이레날에 난중에 다 끓여. 애기 낳으면 미역국 끓이고, 빌지 하며. 탈없이 젖이랑 많이 주고 産母 뱀이랑 달게 잘 먹게 해달라고. 젖을 많이 돌아와서 잘 먹게 하고, 産母도 잘 뱀이랑 달게 잘 먹게 성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두 시어머니가 그러고 빌고, 나두 참 머느리한 데 그러고. 전에는 그렇게 밖에 안 했어(원똥, 1 할머니)”

産苦에 관한 風俗은 禁忌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해 그 힘과 능력을 빌려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다. 곧 삼신할머니에 대한 속신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미리 예방하여 재액을 멀리하기 위해서 人間 능력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귀의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미래의 낙관적인 결과를 예견하는 자기안정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하늘 숭배사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겹쳐보면 항상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해 나가려던 의지가 우리 민족의 傳統意識 밑바탕에 시대를 초월하여 연연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성배, 1980).

이상을 요약해 보면, 解産前 돌봄에는 孕胎를 위한 努力, 胎夢, 孕胎, 胎教, 삼시랑 床, 解産 準備가 있었다. 孕胎를 위한 努力으로는 祈子行爲와 夫婦 交合日을 택하는 일이 주가 되었다. 夫婦交合의吉日을 택하여 孕胎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삼신 등 초월적인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致誠祈子和 呪術祈子 등 가임

을 위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였다고 본다. 祈子行爲에서는 머느리의 孕胎를 위해 아들, 머느리 夫婦 뿐 아니라 집안어른들이 祝願行爲를 통한 돌봄을 제공하였다. 夫婦交合日을 택하는 일은 시어머니의 소관으로서吉日이 아닌 날은 시어머니가 交合을 금하도록 하고, 아들과 머느리는 이를 질제하여, 궁극적으로는 家族 모두의 健康을 보호하기 위한 돌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돌봄의 주 제공자는 시어머니이고 돌봄의 對象은 아들과 머느리이다. 胎夢 역시 孕胎가 초자연적인 힘과 관련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대하던 孕胎사실을 알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었다. 胎夢은 본인이나 家族 또는 가까운 이웃 사람도 꿀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웃이 胎夢을 꾸는 것을 볼 때 孕婦에 대해 이웃의 지대한 관심을 볼 수 있고, 德談을 통해 이를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기쁨을 주고 解産前 돌봄을 예비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孕胎 사실은 무월경, 오조, 태동 등 孕婦의 자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고, 孕胎시에 家族이나 이웃의 보살핌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이웃에게 流産問題를 의논하였을 때 충고로서 孕婦를 보호하는 돌봄행위도 있었다. 胎教는 孕婦가 대상으로 행하는 解産前 돌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미리 혼전에 가르침을 받아 언행과 자세를 조심하고 胎中의 아기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産前에 解産을 위한 準備에서도 여러 형태의 돌봄을 볼 수 있었다. 즉, 태어날 아기를 위해 옷, 기저귀 등 물품을 집안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마련하고, 산모를 위해 미역을 준비하며, 삼시랑 床을 차려 母體가 순조롭게 解産하도록 祝願하는 돌봄행위가 나타났다. 따라서 孕胎와 解産에는 삼신, 삼신에게 차리는 삼시랑 床 등 인간적인 노력 이외에 초월적인 힘에 의해 조절되며 매우 이를 신성시하는 생각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孕胎를 위한 祈子行爲와 夫婦 交合日의 選擇, 胎夢, 孕胎, 解産 準備 등의 돌봄행위는 돌봄의 주 제공자인 시어머니를 위시한 家族과 이웃이 머느리 또는 아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家門의 代를 잇는 子孫을 위함이므로 궁극적인 돌봄의 대상은 ‘家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돌봄이 集團의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 B. 解産時 돌봄

본 연구자료에서 나타난 解産時 돌봄은 産室의 準備, 解産過程, 臍帶의 切斷으로 구분된다.

## 1. 産室 準備

産室의 準備는 解産할 방을 정하고 거기에 짚을 까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産室 準備에 대한 진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름에는 이렇게 깊숙한 방에, 빛이 드니까. 구석방에 빛 들지 않는 방에다 잡지. 이렇게 치양을 쳐, 발 있지 왜 발... 겨울에는 따뜻하니 불 때고 빛이 잘 드는 방. 이런 방에서 낳지. 다 막아 놓고, 시골은 겁나게 추워. 여긴 너무나 많으니까 불을 겁나게 때, 뜨끈 뜨끈하니 (아래뜸, ㅅ 할머니)”

“질자리에서 애기를 낳아. 맘이 질자리에서 복 탄다고 그러지. 짚을 나락하나 안 들어가게 깨끔하게 해서 깔았어(원뜸, ㄴ 할머니)”

“질자리에서 명복 탄다고 뭐 어른들 말씀은 그랬다고. 그래서 짚도 조금 패고, 깨끗한 짚으로 갖다 한계, 인자 어른들이 다 그런 것 해 두시고(원뜸, ㄱ 할머니)”

“아, 애기 기미가 있으면 인자 옛날에 우리 애기 낳을 때 짚더미... 애기 기미가 배가 슬슬 아프고 애기를 낳자며는 그러거던 그럼 짚다발, 예날에는 짚다발, 짚갈고 낳았어, 짚갈고. 짚은 밖에 둔 놈을 검불 싹 빼버리고, 나락 하나 안들어가게 깨끔하게 해서. 배가 아프다고 어찌고 하면, 그러면 그놈을 인자 깔아 줘, 산모 밑에다. 들어 누울 만치, 죽, 여기 방바닥에다 죽 깔아 놓고 그 질자리 위에다 들어 누웠사, 산모가. 그래 갖고 애기를 낳아 질자리에서. 옛날에는 짚을 깔았어. 으레것 애기 기미 있으면 막 짚 추려서 저 구석데기에다 갖다 세워놔. 짚은 검부적, 검부적을 다 빼버리고, 저 구석데기에 딱 세워놔다가...(원뜸, ㄷ 할머니)”

“함, 피도 있고, 그래 그선에는 짚 깔아 놓고 낳지 짚 한다발 척 갖다 아랫목에다 갖다 놔(아래뜸, ㅇ 할머니)”

産室은 일정한 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산모를 추워나 더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解産時 깨끗한 짚을 깔아 解産할 장소를 準備하였는데, 짚을 까는 이유가 본 자료에서는 아기의 長壽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헌상에서는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송석하는 짚이나 띠(茅)는 토지를 의미하고, 淸淨한 植物이며, 人間의 生命을 부여한(적어도 존속시켜 준) 植物이고, 多産性的의 열매를 맺는 植物이라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또 짚은 다만 安産을 위해 살아 놓은 것이 아니라 실은 아이의 出生을 돕는

神으로서의 祈願의 對象으로 취급하는 데서 발생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의 神化 學者인 미시나(三品彰英)도 韓國에서 解産時에 사용하는 짚에 대해 짚에서 벼가 무르익는 것과 人間의 수확으로서의 아이의 出生을 공동관념에서 보고 짚에 대한 信仰이 생겼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김동욱 등, 1988). 이렇듯 解産時에 짚을 사용한 것은 짚에는 穀靈이 깃들어 있고 그 穀靈이 주력을 발휘한다고 믿었기(박규홍, 1983) 때문에 짚 자체에 약간의 신령스러운 의미를 부여하여 산모의 解産을 돕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인명선, 1989)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세존께서 ‘초산에 피흘려 땅을 더럽혀 지신이 못견디고 악귀날침이요’”(허준, 1612)라고 한 것과 속신에 짚을 사용하면 出生兒의 命이 길어지고 무탈하게 자란다는 것(김승찬, 허영순, 1970)으로 미루어 볼 때, 地神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태어나는 아기에게 해롭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祈願도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짚은 農耕社會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재료이고, 對象者의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産室이 더럽혀졌을 때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위생상의 이유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료상 産室의 準備를 누가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으나 對象者들의 당시 가족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어머니를 위시한 집안의 여자 어른들의 소관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2. 解産過程

「東醫寶鑑」(잡병편, 10권)에 따르면 “孕婦가 달이 차면... 배가 아프고 腰, 脊을 索引하면 이것이 解産을 하려는 증후이다. 孕婦의 배꼽과 배가 다 아프고 허리가連해서 당기며 눈에서 불이 나는 것은 胎兒가 몸을 구르는 것이니... 배와 허리가 다 하와야 正産의 증후이다”라고 한 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도 해산 진통이 진술되었다. 다음의 해산시 진통의 표현을 보면, 진통의 정도와 기간이 다양하였으며 또한 통증을 표현한 양상도 사람에 따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애기 날 때 오래 오래 며칠도 빼대고, 고생하고 낳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낳고 쉽게 낳았어, 오남매들. 오래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하고, 뭐 이래 여드레씩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때는. 그 침애는 그때는 뭐 병원이 있어 똥이 있어, 그 고생을 다 하고 집에서 다놓고 살았지. 애기 날 때 아파도 넘 부끄러워, 남이 어려운 게로 꼭 참고 소리도 안질러. 한 고배[고비]가 다 있어. 그리고 모래잔 물이 러서야 애가 나오드

만. 그게 터지면 절레도 쟁겨 놓고 가새, 실도 다 쟁기고. 하, 나는 칭칭 어른들이 많아서 소리도 못하고 꼭 참고, 내가 소리도 안 지르고(시어머니가) 뭐라고 허지도 않고, 안스러워서 맨날 허싸셨지(원뎡, ㄴ 할머니)”

“칠월 열 여덟날 난디. 애기가 돌아 그전 날에 애기가 나올라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배가 아프더니만… 나중엔 쉽게 돌아 낳는데. 처음에 그랬당게… 그렇게 아팠당게(아래뎡, 〇 할머니)”

“첫애기라 애기 날 때 등산 난리를 냈어 막. 애기 낳고 나오니까 흥들을 내 싸 막. 아니 그렇잖아. 구석에 무엇을 세우고, 지붕에다 질막에다 올라가 앉고 그랬다고 그래. 술들을 봐 싸. 농문을 다 열어 놓고, 물독을 뒤집어 놓고. 아니, 쉽게 나라고. 시안 독 뒤집어 놓고 막… 몰라 인제. 어쨌든지 저녁이 잘라 하문서 돌려 갔고 아침에사 낳았으니까. 아고 딸 나솔 때도 첫 애는 사흘이나 돌려 갖고 낳제(원뎡, ㄴ 할머니)”

“배가 아프다 낳지 뒤. 그것도 중없어. 한나절 아프다 난 놔도 있고 사나흘 아프다 난 놔도 있고, 금방 아프고 난 놔도 있고 중 없어. 다 애쓰고 낳는 거지. 애쓰고 낳지. 배가 아프면 소리 지르는 사람은 막 소리지르고 암말도 안하는 사람은 암말도 않고 낳고 그것도 여러가지여. 소리 지르고 나는 사람은 굉장 허, 막 난리나지(아래뎡, ㄴ 할머니)”

“날이 갈수록 배가 아프더니만 날이 갈수록 배가 더 아프다. 아이고 날이 가도 배가 아프냐… 죽는다고서 돌아다니게. 허리가 아픈게 끔작을 못하겠더구만. 배가 아퍼서 들락 날락…(아래뎡, 〇 할머니)”

“아파 소리지르고. 나아 버려야 덜 아프지(원뎡, ㄴ 할머니 며느리)”

본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順産하는 경우가 많으나 첫아이의 경우 특히 難産하는 사람도 있다. 진통이 있을 때 妊婦는 참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돌아다니는 반응을 보였는데, 진통을 참는 경우 이를 시어머니가 안스러워 하며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진통시에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반면, 전술한 바 있는 삼시랑 床을 차려 놓는 것 이외에 농문을 열어 놓고 물독을 뒤집어 놓고 구석에 무엇을 세우고 지붕에다 올라가 앉는 등의 呪術의 방법을 동원하여 대처하기도 하였다. 이는 難産은 아이가 나오는 문이 좁은 까닭이므로 모든 문을 열어 놓고 마개나 뚜껑을 열어 놓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 출입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뜻으로서(임동권, 1980), 아기 낳는 길을 쉽게

열어 주기 위해 유사연상법을 응용하고 있음(김승찬, 허영순, 1970)을 볼 수 있다. 또한 본 對象者의 경우 물독을 뒤집어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아기가 쉽게 빠져 나오기를 바라고, 초가 지붕은 妊婦의 배와 유사한 모양이므로 그 위에 올라 앉아 무게를 주어 아기를 밀어 낸다는 象徵의인 行爲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呪術의이지만 그 나름대로 産母를 돕고 안심시키며 가족원이 동원되는 등 모두가 협동한다는 의미에서 흥미로운 것이다(이두현, 이광규, 1973). 따라서 이들 행위는 해산중 진통을 완화시키지 못한 돌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의미에서의 順産을 위해 祈願行爲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解産 진통시 남편에 의지하여 順産하는 예도 드물지 않다. 진통시에 남편이 옆에 함께 있으면서 妊婦의 배를 쓰다듬어 주거나 허리를 주물러 주고 안아주거나 또는 남편에게 기대는 것 등 접촉이 妊婦에게 커다란 지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동모를 숨그러 나오라 그래 배가 불렀는데. 모를 심는데 술술 돌아. 그래 우리 서방게로 갔어. 배 아프면 쪼께 잔주를 라고, 서방 옆에가서 이렇게 고대 갖고. 그래 시어머니가 보더니 아이 들어가거라 그래. 아따 그 소리가 좋아서 정신없이 들어갔어…(아래뎡, 서창할머니)”

“난 달이 된 디. 그 이튿날, 오늘 삼을 삼으로 갈란디 아침에 갈란디 이제 배가 썰썰 아픈디. 배가 썰썰 아픈디. 솥물양반 녀의 사랑에 가불고. 가만히 있었어 아랫목이가. 요만 때나 된디 죽겠어 막. 가서 아버지 찾아오라고 했어. 그 때 녀 부끄러운 것도 없드만. 가서 어이서 손님 왔다고 아버지 좀 일른 오래라 그래서. 대불구 왔어. 아 왔으면 쪼께 아름답게 따 보듬고 그래알 것 아닌가. 나는 죽겠는디, 아 내 허리 좀 주물러 주물러 하니께, 간지럼밥만 먹여. 쪼께 아담담하게 보듬고 좀 정답게 해주만 안 좋아. 아 이러 네요. 아따 그 놔도 감사하다. 아 그런데 이렇게(아들이) 쭉 나오데(원뎡, ㄴ 할머니)”

解産時 體位는 産婦의 안위와 順産에 영향을 미치는데(허준 1612; 이경혜, 노춘희, 1989) 본 研究對象者들의 解産體位를 보면,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아기를 낳았으며, 새끼줄이나 문턱, 혹은 남편의 손을 잡고 힘을 주어 解産하기도 하였음을 다음 진술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解産時 시어머니가 힘을 주라고 부축이는 돌봄행위를 볼 수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남편이 함께 있기를 원하였고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解産時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진통이나 解産이 여자만의 일로서 남자에게 노출하는 것을 편지 않게 생각하여 조용히 혼자서 감당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解産時에는 이런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妊婦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어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애기 낳을 때 누워서 낳아, 잡는 것도 없이 그냥 누워서도 낳았지… 애기가 나올라고 인자 그러면 시어마이가 새끼줄을 매다 걸면 힘주라고 그러시지, 힘을 주야 폭나와 버려, 힘을 주야 폭나와 버린다고. 말하자면 변소에 가서 대변을 볼려면 힘 쓰이지 안해, 그러걸이 힘을 딱 주면 폭나와 버려지(원뽐, ㄷ 할머니)”

“애를 얻디어 낳는데…(아래뽐, ㄹ 할머니)”

“첫애기 낳 때 우리 시어머이가 손잡으라고 그래, 근데 우리 문턱이 높아, 문턱 높는데다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애기 나니까 손이 아파. 손을 떠니까 잡았어. 어떻게 잡았던지. 신랑이 잡았지. 시어머이가 내가 이렇게 자꾸 떠니까, 붙들어서 잡으라고 해서 붙들었어(아래뽐, ㄹ 할머니)”

“아— 어떤 사람들은 애기 아빠가 있어야 애기 낳은 사람이 있다더구만. 애기 아빠가 옆에 있어야 애기 낳은 사람이 있대요(원뽐, ㄷ 할머니)”

“애기를 나오면 싹 쫓아 내야 허요. 사람이 없어야 되요. 내가 활활하니 애기 낳으면 누가 있으면 안 편해. 마음적으로는 부담감 있고 편하지 않는데 싹 나가 버려. 남자들이 옆에가 누가 있으면 편하들 앓어. 나 혼자 있어야 편하지. 애기 아바이 될 사람은 무시 궁금혀여도 남자는 애기 난 방에 들어오들 안해요(아래뽐, ㄹ 할머니)”

그리고 대다수가 解産時 주로 시집에서 시어머니, 시할머니, 큰 동서, 시백모 등 시집의 여자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고, 시어머니가 生存해 있지 않은 경우에 初産時에는 家族의 염려하에 이웃사람의 도움을, 經産時에는 혼자서 낳았다. 그리고 드물게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음을 다음의 진술에서 볼 수 있다.

“애기는 시집에서 낳았지. 시어마이가 애기 받아서 5남매를 다 키워주고…(원뽐, ㄴ 할머니)”

“시집에서 애기 낳 때 할머니 그리고 동서 가 받았어(아래뽐, ㅅ 할머니)”

“큰 딸하고 아들하고는 여기서 낳고… 우리 시어머니도 계시고 시할머니도 계시고 어른들이 받았어. 둘째는 친정에 가서 낳고… 친정에 갈 때는 미리 가서 있다가, 한 9개월쯤에. 친정 어머니가 받아 주셨지(원뽐, ㄱ 할머니)”

“시어머니는 안 계시. 혼자 낳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 났을 거도 내가 다 허, 내가 다 했당게. 첫째는 시백모가 하고 그 다음 부터는 내가 다 했당게(원뽐, ㄹ 할머니)”

“시어마이도 없고 지정간도 없고 타성네 집에는 통 그때만 해도 발을 안대. 어디가 발 대요 잉. 타성네 님에 더 누가 발을 대봐, 서로 말도 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덕순이가 밤중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 성이 아파서 저렇게 죽을란다. 인자 죽을라고. 거기 이웃에 호재망구가 있어. 망군택이 오라고 그랬어 내가 다 죽는다고. 아이구 짐부릴라고요? 호재할마이가 짐부릴라고요?(아래뽐, ㄹ 할머니)”

### 3. 臍帶의 切斷

본 조사에서 臍帶의 切斷方法을 보면, 태줄의 피를 아기의 배꼽쪽으로 흘려 넣은 후 태줄의 양쪽을 꼭 묶은 다음에, 배꼽에서 한뼘쯤 되는 위치를 가위로 자르고 실로 묶었는데, 이때 저의가 소독되지 않은 가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줄은 거시기… 배꼽에 채 붙어 나지. 배꼽을 태줄에다가 이렇게 흘려 넣고, 배꼽 붙은데다 흘려 넣고는 양쪽을 꼭 꾹매 놓고는 가운데를 싹 비드만. 가새로 잘라 실인가 물로… 태를 잘라서, 배꼽에다 잘른건 내 놓고(원뽐, ㄴ 할머니)”

“애 낳고 나면 태줄은 이렇게 한 뼘 잡아 끈어. 그냥 가위로 끈어. 야무 가위로 집에서 내가 쓴 가위로…(아래뽐, ㄹ 할머니)”

“가위 갖고 태 자르고(원뽐, ㄷ 할머니)”

“애기 일단 낳고 나면 눕혀 놓지, 태 끊어서 가새도(아래뽐, ㅅ 할머니)”

처음나서 배꼽을 끊는 경우가 「東醫寶鑑」(잡병편, 11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十月의 胞胎에서 다만 배꼽으로 어머니와 더불어 氣를 通하였으니 비록 胞에서 나왔더라도 그 배꼽 속의 通하는 氣가 오히려 다 끊어지지 않으므로 배꼽을 끊은 뒤에 바람이 들어가서 病을 이루



는 수가 있으니 끊는 법은 처음 나는 小兒의 臍帶를 線으로 싸서 배꼽에서 5-6寸쯤해서 부드러운 綿繒으로 졸라맨 노끈밖에 받치고 臍帶를 끊은 다음 잠깐 동안 노끈을 끌어서 피가 다 흐른 다음 가볍게 만져서 핏기가 없으면 臍頭를 쪽으로 3壯 혹은 5壯을 찔하고 다시 노끈으로 매어서 軟帛으로 싸두고 함부로 떼어 보지 말 것이며 臍根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 자연히 무사하게 된다. 처음 나서 곧 부드러운 솜으로 배꼽의 뿌리를 싸서 비단을 덮고 제3일만에 배꼽으로부터 두 손가락 넓이의 길이를 끊고 生薑自然汁이나 혹은 香油에 麵을 和하여 배꼽의 四邊을 둘러 싸고 臍頭에는 쪽으로 壯을 찔하는데 이것을 黑臍과 하며 뒤에는 바람이 들지 않는다. 먼저 아이의 臍帶를 덮어 2寸쯤 남겨두고 線으로써 繫定한 뒤에 洗浴을 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濕氣가 배에 들어가 반드시 臍風의 증세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허준은 배꼽의 올바른 관리방법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한 감염을 주시하여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켰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産後臍帶處置시 거의 대부분이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切斷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臍帶處置의 부주의에 따른 영아 사망의 경우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新生兒의 사망을 不正탄 것으로만 여기고 이를 臍帶 감염에까지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臍帶를 無菌의으로 切斷하지는 않았지만, "배꼽불은 데다가 훑어 넣고"라는 對象者의 표현 속에서 新生兒를 補하고자 하는 깊은 배려를 엿볼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解産時 돌봄은 産室의 準備, 解産過程, 臍帶의 切斷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解産의 징후가 있으면 추울 때는 따뜻한 방에 더울 때는 햇볕이 들지 않은 시원한 구석방으로 産室을 정하는 등 家族들의 배려가 있었고, 産室에는 깨끗한 짚을 마련하여 깔았다. 진통시 妊婦가 참았을 때 이를 시어머니가 안스러워 해 주었고, 남편이 옆에 함께 있으면서 접촉의 방법으로 돌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解産時 體位는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새끼줄이나 문덕 혹은 남편의 손을 잡고 의지하여 解産하였으며, 이때 시어머니의 힘주라는 격려나 남편이 함께 있는 것이 지지가 되었다는 경우도 있으나 남편이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對象者도 있었다. 解産時에는 특히 이런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妊婦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어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돌봄행위임을 알 수 있다. 解産이 지연될 때 象徵의인 行爲를 통해 順産을 祈願하였다. 이렇듯 解産過程을 주로 시어머니가 담당하였고, 시어머니가 없을 때 시집의

여자 어른이나 남편, 이웃의 여자가 도왔다. 臍帶의 切斷시에는 소독되지 않은 가위를 사용하였으나 新生兒를 보하고자 하는 배려도 있었다.

### C. 解産後 돌봄

解産後에는 금줄을 매고, 胎를 처리하고, 出生兒와 産母를 돌보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 1. 금줄

금줄을 國語辭典에 보면, 不正을 막기 위하여 길이나 문에 건너질러 매는 禁하는 줄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금줄은 아기가 出生할 때만이 아니라, 가족이 새끼를 낳았을 때, 천연두가 유행할 때, 공동우물을 팔 때 등 그 사례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옛날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에서 금줄이 차지하는 의미가 컸으며 그 기능 또한 神觀, 信仰行爲에 있어서 中心의 心性을 나타내는 象徵이었던 것이다(김동욱 등, 1988).

여기서는 오로지 解産한 다음에 금줄을 매는 돌봄행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아들 금줄은 인자 막 꼬치 꿸듯 연필 뒤편, 공부 잘 하라고, 미영심도 달고. 여자는 인자 짚을데기만 하나 딱 찌르고 술가지 하나 찌르고...(원똥, ㄴ 할머니)”

“애기 낳으면 집안에 금줄 새끼를 왼손으로 보통 오른손으로 이렇게 꼬면 오른 새끼데 이렇게 반대로 꼬면 꺼꾸로 짜 저요. 근데 인자 잘 왼손에 꼬아야 한다는 사람은 왼쪽으로 새내끼를 꼬는데, 거는데 새끼 꼬아 가지고 새끼고 뭐고 구추고 뭐고 빼어야 하는 사람은 쓰던 거 있던 사람은 오른 새내끼로 갔다 치고... 아까 인제 금줄을 만들 때에(원똥, ㄴ 씨)”

「朝鮮女俗考」에 보면, “우리나라에 집에 産事가 있으면 곧 왼새끼를 꼬아서 문 위로 기로 거는 習俗이 있다. 儉繩이라 이르기도 하고, 또 因繩이라고도 한다. 外人은 이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남자아기이면 새끼 눈에 붉은 고추와 푸른 소나무 가지를 사이사이 엮먹이어 끼우고, 여자아기면 소나무 가지와 숯덩이를 사이사이 엮먹이어 끼워 兎에 남이를 낳았는지 여아를 낳았는지 알게 한다. 産家儉繩의 유래는 아주 오래다. 이조 成宗때 성현이 지은 ‘용재총화’에 捲艸의 예를 행한 것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道教의 流俗을 본 뜬 의식으로서, 民家儉繩

의 風俗이 이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본다. 이것은 대개 天帝의 조화가 사람의 生命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데서 그렇게 이른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解産을 하면 산구완을 한 사람이 家族들에게 出生한 아이의 性別을 알리며, 性別에 따라서 금줄을 친다. 금줄은 "인줄" 또는 "금기줄", "금구줄", "기우줄"(김승찬, 허영순, 1970), "금삭줄"(유안진, 1984) 등 여러가지로 불리우는데, 지방에 따라 어떤 명칭을 가지든지 靛(靛)이 재료가 되며 靛의 神聖性을 더욱 확실히 하는 왼새끼(左繩)라는 것이 공통점이다(김동욱 등, 1988). 이와같이 어디에서나 左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때로 左繩을 하지 못하면 보통의 새끼줄을 사용하는 수도 있다(임동권, 1971). 본 자료에서도 원칙은 왼새끼를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의 오른 새끼를 사용하여 금줄을 만들기도 하였다. 왼새끼는 보통 줄과는 다르다는 구별 이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왼새끼는 "귀신을 쫓는다", "귀신은 왼새끼를 싫어하고 무서워 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김동욱 등, 1988) 악귀를 쫓기 위하여 왼새끼를 사용한다. 그러나 김동욱 등(1988)은 韓國을 비롯한 東洋의 왼쪽에 대한 거룩한 관념으로부터 원초에 왼새끼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옳은 것의 象徵이라는 관념이 먼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금줄은 그것 자체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 보다 앞서야 하고 악귀는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금줄을 보면 피한다는 관념이 이차적으로 생기게 된 것이라고 본다. 원래 解産時 금줄을 치는 것은 평소에는 없는지도 모르는 解産의 神인 삼신이 가장 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때이므로 삼신이 안좌해 있는 성지의 표지로 금줄을 치는 것인데, 이것이 차차로 不正한 것이 신성의 장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발달하여 현대에 와서는 아이의 健康상 어떤 不正이 못들이오도록 解産을 알리는 표지로까지 이르는 것이다(김동욱 등, 1988).

그리고 금줄의 성별 표시는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본 자료에서는 남아의 경우 고추, 연필, 미영심을, 여아의 경우 靛과 술가지를 달았음을 알 수 있다. 금줄에 꿰는 고추는 남성의 상징이고, 술잎은 침엽수로 상록이므로 침엽은 썩르는 것으로 잡귀가 두려워 하도록 잡귀의 접근을 방지하며 또한 녹색은 東方을 의미하는데 東方은 광명이고 광명은 양이므로 양은 陰鬼를 추출한다고 보며, 靛은 곡령이 깃들어 있고 그 곡령이 주력을 발휘한다고 믿었고(김성배, 1980), 흑자는 술가지는 소나무가 사철나무이므로 여사의 절개를 표시한다고 보기도

하였으며(이신숙, 임옥재, 1988), 그의 미영심은 長壽의 상징으로 아기에게 긴 壽命을 달라는 의미로, 연필은 공부를 잘하기를 祈願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무튼 금줄은 解産을 도운 사람이 제일 먼저 아들인지 딸인지를 이웃에 안내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줄을 쳐서 7이레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禁하는데, 3칠일이 지나면 친척들의 방문만이 허용되었다. 禁忌를 지키는데 있어서 家族 뿐 아니라 이웃사람들이 방문을 자발적으로 삼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禁忌 사실과 그것을 어겨 不正 타를 때의 피해를 본 조사 자료의 다음 예가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금줄을 쳐요. 그래 가지고 인자 이레마다. 이레는 일곱이레를 다했는디 딱히고 거시기 헌것이 삼칠일 지나서... 딱 허면은 먹고 친척들 오면 먹고 그랬어요. 일곱 일곱은 외부 사람들이 그 집을 출입을 삼가해 줘요. 상주 아니라도 안 가고 그렇게 삼가해 줬고 보통 사람도 가는 것이 그 안 좋은 걸로 알고 되도록이면 아주 안 와. 인자 친척들은 우선 크고 작은 일에 의논하고 뵈고 하고 애기도 불라고도 오고 친척간에는 허지만은 보통 잘 못 와(원뽕, 7 씨)"

"애 놓으면 사람 나쁜 사람 못 들어오게, 굿은 사람 못 들어오게 상주들, 굿은 꼴 본 사람 못 들어오게 할라고 금하는 금줄을 쳐. 그런 사람이 들어 오면 젓이 말라. 젓이 없어지고 不正허여. 不正을 타면 젓이 말라. 살이 없고 不正을 타면 애기한테 不正이 나면 산모한테 不正이 나면 산모가 不正을 타서 아프고 그래. 본집보다는 맵기는 사람이 조심을 해야지. 대리주조 조심을 서고 나쁜 걸 보면 안 와야지(아래뽕, 0 할머니)"

"그때는 상주는 그렇게 꺼려. 애기 낳 때 인자 상주가 가면 안된다고. 이웃에서 누가 풀만 쪼개 줘어도 훔을 내야 잉, 애기가 모다 얼굴에가 막 다닥 따닥 불티가 나, 줍쌀 마냥이로. 그 전이든 모다 그랬당게. 그런 구진 [굿은] 사람 오면은 애기가 홍계를 내 不正 타. 개가 제일 상쟁이여. 왜 그러가 몰라. 금계 不正 타지 말라고 손 비빈당게. 그리고 금줄 다 맺어. 금줄 매도 금줄 밑으로 모르고 들어 오면 인자 그렇게 홍계를 내. 예전엔 그렇게 不正 타다고(원뽕, 8 할머니)"

"새끼를 낳 갖고 여기 이천택이 여기 조금 살았어. 그 집 애기가 모두 조의 어머니 죽어 복을 입었는가 어떻게 할머니가 제신디 그집 애가 우리 마당에서 놀아, 그렇게 할머니가 다 쫓아(원뽕, 7 할머니)"

"나 우리 굼뱅이 나갔고 큰집에서 상주라고 들어다들

안 봤어. 통, 얼른거리지도 않았어. 不正을 탄다고, 귀신이 붙었던지. 젓이 저 든지 애기가 不正을 타든지 산모가 不正을 타든지 그러. 귀신 맹이로 잘 알아 그 맨. 不正 올르면 그전에는 애기가 통 바싹 말라서 살이 안올란 게, 응. 이웃이서 푸나무 때도 죄다 거시기여. 그렇게 얼굴이 노르가 푸르던가 그러. 왜 근다냥게, 푸나무 때문 이라. 아무 짓도 못혀. 우리 하님이 낳구는 세이레 가도록 통 꿈지락을 못 혀. 우는 소리가 개 잡아서 묶어는 개 우는 소리 마냥, 돼지 우는 소리를 내싸 애기가. 꿈지락을 안 해. 눈만 이렇게 말뚱말뚱 새까만이 했제. 꿈지락을 안 해. 不正 타서. 다리가 이레 보도 앓고, 아무리 많이 덮어 놓고 발에 갔다 와도 꿈지락 혀서 이막침 갔는가 하면 고대로 가만 있어. 눈만 새까맣게, 움직거리질 않아. 그리고는 우는 소리가 개소리 마냥하고 돼지소리 마냥 해. 그러기 넘덜이 저집 애가 오늘 해를 넘길란가 모르겠다고, 우는 소리가 안 난다고 해싸. 어떻게 애가 타는가. 또 애가 하나 죽어 버렸으게 그래 안 하겠어. 첫 애가 죽어 버렸으게. 우리 어마이 보고 좀 물어 보시라고. 시숙 가서 좀 물어보시라고. 스물 둘에 난 게 여름에 난 게 뭇이 있었어? 양식이? 어디서 기시기 상주집인데 첫국밥을 난 쌀 거기서 해다가 첫국밥을 거기서 해주더구만. 그러는게 사흘을 지나고 난게 요상스러워. 죽겠어. 없어질란 것 매이로 덮어질란가 매이고 몸부림치는가 봐여 죽을라고. 사흘 지나고 나서 일이 하나 가고 그란 셈이여. 할수 없이 저 놈을 저녁에 삼 그놈을 빨았다고 말려서 덮으니까 방에서 뭇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인자 쪼가서 덮어 놓고 덮은 게로 가슴에다 손을 논게 숨이 없어. 숨을 안 쉬어. 딸을 낳는디 딸인데... 저녁이면 잠을 못 자고 죽을란게 그러고 잠을 못 잔게 나도 못 자고 지도 못 자고(이레땀, ○ 할머니)"

한때 迷信으로 배경되었던 이 儉繩 風俗은 의학적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產母와 아이의 健康을 도모하는 가장 최선의 조치였다고 본다. 이 금줄은 하나의 分離儀禮로 집안사람들도 몸가짐과 출입을 삼가 하지만 무엇보다 外人, 특히 상주나 상가 사람 등 不正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두현, 이광규, 1973)는 것을 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줄은 이와같이 하나의 금지 표시요, 꺼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원시적인 행동이지만 무언의 상징으로서도 큰 구실을 한다. 즉 產室의 神聖性보다는 어린 아이의 壽命이나 전염성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新生兒의 健康管理面에서의 기으로서, 외부 사람들의 손과 발과 입 등의

신체와 의복 등에 무서운 세균이 묻어 산모와 아기에게 병을 전염시킬 우려도 있는데(김성배, 1980), 產母나 新生兒는 심신이 허약하여 외부로부터의 세균침입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하므로 外人의 출입을 금하는 뜻으로 본다면 과학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이선숙, 임옥재, 1988). 유안진(1984)도 家風에 따라서 解產母와 아기를 위해서 3월이나 7월동안 금줄을 걸어두는데 그 기간은 產母의 회복에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동시에 아기의 배꼽이 아무는데 필요한 시일로 생각하였으며, 傳統社會에서는 醫學의 미발달로 영아사망률이 특히 높았고 產母의 사망률도 높았던 점으로 미루어 금줄로서 外人의 출입을 제한하며 전염병 또는 세균의 침입을 막으려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줄은 이웃으로 하여금 出生兒에게 害가 되는 특정 행위 즉, 풀을 끊어거나 푸나무를 태거나 개나 돼지 등 가축을 살생하는 행위를 금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요약하면 금줄이라는 상징을 제시하고 이를 어겼을 때 產母나 아이가 不正을 탄다는 것을 人間의 의식속에 주지시킴으로서 외부인, 특히 不正한 사람의 접근과 해로운 행위를 제한하여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產母와 出生兒를 보호하는 등 이 둘에 대한 깊은 배려와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胎處理

解產後의 돌봄 중에는 胎處理도 중시되고 있다.

「閨閣叢書」에 의하면 胎를 사흘만에 자르지 말고, 술을 놓고 백번을 빨아 그 힘줄 떨어지는 것을 체에 받혀서 흰항아리에 흰 열전 한 잎을 함께 넣고 기름종이로 봉하고, 알맞는 점시로 덮어 종이로 노끈을 일백발은 끊어 그 항아리로 동여 月空方便에 놓았다가 석당 후 날을 택하여 月空方에 묻으라는 배꼽의 처리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胎處理 관습은 胎를 작은 단지에 넣어 뚜껑을 닫은 뒤에 땅에 매장하는 법과, 불에 띄워 버리는 법과, 불에 태우는 법이 있다. 대체로 태우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 때도 일정한 방위가 있어 이를 燒胎方이라 한다(이두현 등, 1983). 임동권(1971)에 따르면, 胎의 處理는 不淨한 厄方을 피해서 불에 태우거나 埋葬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녀가 불임증에 유효하다고 해서 약으로 흡쳐 가는 수도 있어서 잘 지켜서 태운다. 태우는 위치는 방향을 골라 하거니와 거리에 따라 산모가 아이를 자주 낳기도 하고 늦게 낳기도 한다고 하는데, 가까운 곳에서 태우면 자주 孕胎를 하고 먼곳에서 태우면 드문 드문 낳는다고 전한다. 강물에 제를 버리는 것은 乳道가 풍족

하라는 뜻이며 남몰래 버리는 이 不正이 없다고 한다. 또한 胎處理는 반드시 3일 후에 해야 하며, 3일 전에 하면 삼신 할머니가 노해서 후손을 안주거나 해를 입힌다고 보고한 연구(고부자, 1976)도 있다. 본 자료에서는 모두가 胎를 삼일만에 解産時 낳았던 짚과 함께 태워 땅에 묻거나 물에 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줄은 그냥 끊어서 살라 버리지 마당에서 사흘안에 …(아래뜰, ○ 할머니)”

“(解産時) 짚간 사람은 짚하고 태하구. 태 나오면 그냥 짚에다가 딱 써서 구석텅이에 다가 세워 놔다가 사흘만에 그 방에 간 놈을 실어 내갔고, 그 산기 갖고 꼬슬터구만. 태는 낳은 즉시 짚에다가 써서 세워놔다가 사흘만에 방바닥에 깔고 애기 낳은 짚을 꼬실 적에 갔다가 꼬실면 태가 덜 타면 장작을 갖다 태우고, 짚은 부르르 타버리고 … 태도 있고 피도 있고, 그기 삼일만에 태웠당게. 그 놈이 탈이 된게. 여기가 피도 묻고 저기가 피도 묻고 갖고, 삼일만에 태워. 집집마다 사람마당 애기 낳으면 그런게. 저 마당에 손 없는 데에다 놓고 불을 댕겨서 끓이여. 하루 이틀 등에 있고, 사흘 나흘 남쪽에 있고 닳새 엿새 시쪽에 있고, 이레 여드레 북에 있고 손이 그러그든. 아흐레 열흐레는 손이 없고 헌게. 손없는 땅에다가 손없는 쪽에다 놓고 불을 살면 태가 오래 타. 짚은 쉽게 타지만은 허지만 태가 오래 오래 탄게. 오래 오래 질척한게 두면 장작 조각을 갖다 때. 태워갔고는 싹 실어다가 물에다 띄우는 사람도 있고, 그놈을 또 어떤 사람은 파 묻는다든가, 우리가 물에다가 띄웠어. 물… 냇물, 큰 냇물에다가. 근데 시방 여기는 방죽이 있음게 방죽에다 했는가 봐여. 그기는 내가 안하고 애기 낳고 꼭 들어 앉았은게 어른들이 다 하고 어찌게도 하고 다 했지. 말만 들었지 마우 것도 보든 안했어. 태를 손 있는 쪽에다가 하면 살이 생겨 그런가, 손없는 쪽에다가 하면 아무런 탈이 없거든. 뭘 일을 보통 일을 해도 손 없는 쪽에다 대고 일을 하면 아무 탈이 없음게. 애기를 낳아도 그런가 비여(원뜰, ㄴ 할머니)”

“저 애기를 낳은 뒤에 그 놈(짚)을 배 깔고 드러누웠다가, 애 낳고 나면 아 뭘 구정물도 있고 막 피도 나고, 그것 짚에다 다 받았당게, 짚에다가. 삼일이 되려는 그놈을 이제 싹 걷어다가 꼬실라 버려. 짚, 그 애기 낳으면 태가 있거든 태. 애기나면 태하고 짚하고 사흘 되야 갖다 꺼슬러요. 참 명청해오. 냄새나는 걸 방에다 사흘동안. 그냥 그냥 꺼슬러 버리고 옛날에는 꼭 삼일 되야만 그놈

은… 산모가 깔고 드러 누워서 조리한다고 인자 삼일이 되야 꺼슬러(원뜰, ㄷ 할머니)”

“그럼 그놈(짚) 데서 위에 애기 낳고 태 나서 딱 고놈에 다 써서 세워놔다가 사흘만에 갔다 꼬실라. 그래 손비비면 그러잖여. '짚자리에 명복 타고 댕'(원뜰, ㄴ 할머니)”

이처럼 解産의 부산물인 胎를 處理함에 있어서도 손없는 날을 골라 손없는 장소와 방위에서 태우므로써 잡귀신으로부터 産母나 아기에게 탈이 없도록 祈願하는 조심성과 지극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 3. 出生兒

出生兒의 健康과 壽命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삼신이나 그의 인간외적인 힘에 의해 조절된다고 믿었으므로 出生兒의 돌봄은 出生兒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행위와 초월자에 대한 祈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出生兒에게 제공되는 돌봄행위를 보면 처음 낳아서 害毒하는 法, 배꼽 加護, 沐浴 등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애기 받을 때, 애를 막 낳으면 뭘 구정물 삼킨다고. 입에다가 뭘 깨끗한 걸레로 닦아 내. 입에다가 막 넣고 손꾸락으로 저서서 다 닦아내야, 뱃속에서 구정물 먹은 놈 삼키기 전에. 막 나면 그렇게 어른들이 닦아주는 걸 보고 나도 어른들한테 배워서 손자들 그렇게 하고(원뜰, ㄴ 할머니)”

“방이 따스우면 시[쉽게] 배꼽에서 떨어지지만, 그것이 인자. 체에 치든가 어떤가, 배짜 말론 놈을 어디다 달아서 잘 두지. 근디 달아 둔 놈을 어쩐지는 모르겠어, 그런 것만 봐서. 태를 끓고 배꼽에서 사흘만이면 떨어지지. 사흘안에는 안 떨어져요. 배꼽을 달아 놓대. 배꼽 덧나면 그것을 빠사서 덧 친다고 그것을. 배꼽 떨어지기 전에 젖을 짜 넣어 주너구만 배꼽에다. 쉽게 안 나고 어떻게 하면(원뜰, ㄴ 할머니)”

“눈도 닦아 주고 다 닦아 주지. 그리고 나서 먹시켜 주고, 이렛만에 한번씩 뚝 먹 시켜 주고. 따뜻한 물에다 걸레 빨아서 다 닦아 주지, 이렛마두, 일곱 이레 지내두록. 배내저고리 뻗기고 개로 갈아 임히고 이레마다 몸을 모두 씻겨 줘. 막 낳고선 그냥 구정물 생킨다고 그냥 거시기로 입안을 싹 닦아내고 그전에는 시부모들이 봐서 안지. 이류도 없어. 따뜻한 물로 다 씻겨 싹 씻겨. 이레만

에 씻기고, 아침에 한번만 씻겨 아침 밥 먹고 씻겨. 일곱 이레를 한번씩 씻기고 그 다음에는 인자 없이 씻긴데 (원뎡, ㄴ 할머니)”

“애기 낳으면 사흘만에 씻어. 애기 막 나면 물기만 딱여 왔다가 인제 사흘만에 씻어. 배꼽도 안 덜어진게 그러니게 그냥 대충 씻겨. 물 짊어다 씻기지, 그릇에다 (아래뎡, ㄹ 할머니)”

“물 데워서 목욕시키고, 애기 씻기고, 목욕 시킬려고. 애기는 삼일만에 씻기지(원뎡, ㄷ 할머니)”

「東醫寶鑑」(잡병권, 11권)에는 처음 나서 害毒하는 경우와 洗浴시키는 경우도 세세히 기술되고 있다. 아이가 태에 있을 때에 입 속에 반드시 惡物이 있는 것이니 아이가 겨우 나오면 우는 것을 기다릴 것 없이 產婆가 급히 부드러운 비단을 손가락에 감고 黃連과 甘草 濃煎한汁을 찍어서 입속의 惡物을 깨끗이 닦아 버려야 하는데 만약 惡物을 빨아 삼켜서 뱃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모든 疾病이 생기는 법이라고 처음 나서 害毒시키는 법을 제시하였으며, 목욕은 사흘 아침에 아이를 씻는데 虎頭骨, 桃枝, 猪膽을 金銀器에 달인 물에 씻으면 아이가 놀라기를 적게 한다고 적고 있다. 본 자료에서도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입안의 惡物을 삼키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 내어 害毒을 시켰다. 그리고 아기 목욕은 생후 3일 이전에는 수건에 물을 묻혀 눈을 비롯하여 몸을 닦아 주었으며, 생후 3일만에 첫 목욕을 시켰다. 그 후 7이레동안을 때 이레마다 따뜻한 물에 씻겼으며, 7이레가 지나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르지 않고 목욕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꼽 간호로는 배꼽을 통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통목욕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배꼽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행위로 할 수 있다. 만약 臍帶가 떨어지기 전에 異常이 생겼을 경우 어머니의 젖을 배꼽에 짜 넣어 주고, 臍帶가 떨어진 후에 異常이 생겼을 경우에는 마른 臍帶 가루를 배꼽에 뿌려 주었다. 이러한 처치가 갖는 합리적 근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배꼽을 건조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出生兒를 위한 초월자에 대한 祈禱行爲로는 이미 언급했던 삼신에 대한 비손행위와, 다음과 같은 祈禱行爲가 포함된다.

“애기를 나시 칠칠일 그렇롬 圓佛敎에다 축수를 한가 그런 식으로 썰이나 돈을 갖다 바치고 이레마다 그래 갖고 사십구제를 하고(원뎡, ㄱ 할머니)”

또한 과거에는 胎兒의 손모음이 높았던 관계로 出生兒가 일정시기까지 살아 남게되던 家族과 이웃이 이를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었는데, 그 기간은 대개 7이레로 나타났다.

“일곱이레를 다 했는데 딱히고, 크게 한 것이 삼칠일이 지나서 어자는 삼칠일이 크고 남자는 다섯이레가 크다고 크게 짓는다고. 딱허면 친척들이 오면 먹고(원뎡, ㄱ 할머니)”

#### 4. 解産後 調理

解産後에 産母의 몸조리는 産褥期中 産母의 健康을 回復하고 出生兒를 健康하게 키우기 위해 중요하므로 매우 엄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對象者들의 다음 진술에 생생히 표현되고 있다.

“늙어가면 병된다고 조리를 잘 시키지. 시부모가 많이 시키면 많이 현대로 일곱 여드레 가더라도 조리시킨 사람, 그란아면 사흘만에 그냥 나오면 어른들이 덜 좋아 한게 그런가 원체 사흘만 있으면 나오고. 그때는 밥도 귀하고 배도 고평게 그냥 낳아도 진자리에 놓고 그냥 가서 모 숨근 사람도 있고, 아이 그때는 산 세상이 말할 수가 없지. 흥년은 왜 또 그리 들어싸. 어떤 사람은 애기를 그 방 한쪽에 가둬 놓고 뒀 바구리가 뒀 방에다 두고 문을 잠궈 놓고 일하고 와 본게, 애기가 죽었더라. 그놈을 둘러쓰고 어찌커림 울다가 울다가 지워가꼬, 그런 사람도 있고. 그때 사는 시상은 말도 할 수가 없고 시방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가 있어. 난 시어마이가 애기 받아서 5남매를 다 키워주고... 첫국밥 해서 그때는 뒀 나다이가 양은그릇인데 그놈에다가 첫국밥을 담아서 들어오고들 그래. 그놈을 아무리 부모가 시어마이가 많이 먹어라 했사도 밥 한 그릇을 가지고 하루 해를 먹고도 남아. 아침 때새, 아침 먹고 아침 새이 먹고, 점심 먹고 저녁밥 먹고, 하루에 너끼를 먹지 그렇게. 어른들이 대사 주면서 먹으려면 먹고... 자고, 못나오게 하고. 애기 낳자마자 미역국하고 밥만 먹고, 지[김치]같은 것은 어른들이 못 먹게 하드만, 이 버린다구. 고기는 못 먹게 안해두 지같은 것은 깨물어 못 먹게 허고, 지 푸랭이 같은 것도 못 삶아 먹게 허구, 이 상한다고. 바람 못 쐬게 허구, 아 이제 병 된다고 늙어감사 나이들어 감서 아픈디 생기고 인자 찬물에다 손도 못 씻게 허고, 아 일주일, 몰라 삼일, 세이레 가두락을 조례를 허라고 그러지. 세수도 따손물로 하고 문 밖에 안나가고 시어마이가 물도 사나

줘. 또 산모, 애기 낳고 바람들어온다고 내다 보니 저렇게 처서, 바람도 못 쐬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배깁에도 못 나가게 허구 찬물에 손도 못 넣게 하고 세수물도 떠다 줘서 방에서 허구. 그때는 짐집마다 다 그랬지만, 시방은 다그려 안하는게 비여. 나누 저 머느리 그랬지. 머느리가 애기 낳을 때도 5남매, 6남매를 다 내가 받았는데, 씻기도 못허게 하고 바람도 못 쐬게 허고 했어(원뎡, 1 할머니)

“몸조리하는게 땃땃하이 들어 누워서 그런제 조리지. 그런데 첫 칠일 안에나 첫 칠일 무렵에 땃기는 것도 참 안 좋더라고. 몸이 무겁고 아퍼요. 그래 갖고 삼칠일이 지나면 개운하고 가벼워. 삼칠일 까지. 산모는 밥허는 사람은 그냥 나가서 움직이고 웬만하면 세이레 삼칠일 지나야 완전히 몸도 가볍고 그안에는 움직이고 땃기질 못허. 김치 같은 거 먹으면 이가 쉽게 나올 거 같아도 이가 막 전부 횡청 횡청 해버린다야. 느긋느긋 해버리고 그런게는 미역국을 맛이 있으나 없으나 거기다가 밥을 먹었던게 뷔여(원뎡, 1 할머니)”

“몸조리는 뭐 그냥. 아랫목에 들어누워서 미역국 먹고 들어 누운 것이 몸조리지 뭐. 옛날에 몸조리가 뭇이 있간다. 애기 낳고 나면 밥을 해서 산모를 먹여. 그제 첫국밥. 산모는 막 물 묻히면 병들다고, 물도 못 묻히고, 사흘 되도록 보듯이 세수만 하고 밥먹지 뭐,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하고 옛날에는 병든다고. 삼일이 되어야 인자는 나와서 물도 묻히고 그래(원뎡, 1 할머니)”

“그전에는 집에서 난계로 호강스러운 사람은 이래 다 가도록 누웠고 조리하고 해다 주는 밥 먹고 그래 했어. 그러 안한 사람은 사흘만에 나와서 밥도 해 먹고 보리도 쟁고 돼지도 보고 그랬지(아래뎡, 1 할머니)”

“시어머이가 미역국하고 밥하고 갖다 준게. 그 놈의 김치가 먹고자 죽겠어. 어머이 김치 쪼개 주소. 야 야 김치 먹으면 속 아파 그래. 난 순산히 나요. 나는 저녁에 나면 물 탭혀 싹 씻고 아침에 일어나 밥해요(아래뎡, 1 할머니)”

“여간한 머느리도 삼일까지 누웠는 사람 별로 없어. 오늘 낮에 낳았는데 오늘 저녁에 되면 그 이튿날 아침에 밥 짓고 그러니가 전에는 여자들이 많이 아파치고 했으니까. 그 머든 신통통이든지 다른 내부 장이 나뻐던지 간에 산후기, 산후풍, 궁게 알아도 어른들이, 알기는 아는데 또 애기 출산하고 이주나 거시기 하면 시어머이가 말 떨어지지 전에 나가야지 말 떨어지면 나오면 벌써 그것은 점수도 잃고 헛거지 뭐. 점수도 잃을 뻔더러 말을 하기전에 나가야지 아가 아가 하였던지. 명문집에서나

가령 시부모가 이렇게 거시기 혈까 그렇지 않으면 친가에 가시고 싶다 허면 가실라 섬도 반가운 기색이 없은게 가고 싶지 않은가 이랬지만, 친정에 가기가 아주 소망이고 가면 그렇게 좋고 친정에니 기면 뭐 좀 아주 맛있는거 가령 호박을 뭐 어떻게 겨울에 팔을 넣어서 죽을 썬서 해 주거나 허고(원뎡, 1 할머니)”

“낳고 나니까 조그 아버지가 미역국을 뜨뜨럽하니 대접에다 쪼개 가져와 갖고... 더면 좀 많이 디야 할 것 아녀. 띠띠 소리가 나니까 그냥 가져와 갖고 한 대접이나 갖고 와서 억지로 좀 먹으래... 내가 불좀 때주라고 했어(원뎡, 1 할머니)”

“나는 약단지가 다 무엇이여, 어디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있어?! 내 빨래 한번 해준 사람이 있어?! 오직하면 휴실아짐이 한번은 이렇게 넘겨다 보면서 ‘머느리 억으면 머느리에게 내가 빨래 했다고 할려고 그래 빨래를 허요’그랬어. 사흘만에 빨래 했어 내가 싹 넣어 삶아서. 그렇게 호강스럽게 못 허... 인자 하루 나락 두로씩 먹던 몸이 애기 난계 서몹씩 먹어야 허(아래뎡, 1 할머니)”

이상의 자료에서 보면 產母의 몸조리는 크게 음식을 통해 健康을 회복시키는 일과 해로운 자극으로부터 產母를 보호하여 產後의 合併症과 나아가서 노후의 질환을 예방 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解產後에 產母를 위한 음식으로는 첫 국밥을 끓여 주는 것인데, 첫 국밥은 말 그대로 산모에게 밥과 미역국을 먹이는 것으로서 주로 시어머니가 이를 담당하였고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하기도 하였다. 해산후에 특히 미역국을 먹는 것은 「朝鮮女俗考」에는 미역이 海苔의 한 가지니, 破血의 성분이 있어 產婦에 맞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심상용(1976)에 따르면, “產母가 미역국을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옛날 사람들은 미역이 피를 만들어 준다는가 피를 깨끗이 해 준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미역에는 ‘요드’가 풍부히 들어 있어 (미역 100그램속에는 57밀리그램 정도의 요드가 함유됨) 다량의 요드를 필요로 하는 妊婦가 產後에 미역국을 먹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았다. 미역의 성분 분석을 보면, 미역에는 특히 칼슘, 요드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칼슘은 골격과 치아 형성, 產後에 子宮收縮과 止血의 역할을 하며, 요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로서 신진대사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역은 강한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산의 酸度를 중화시킬 뿐아니라 미역속에 포함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排水를 원활하게 하는 작용

도 가지고 있다(유태중, 1989). 이러한 점에서 볼때 産母에게 미역국을 먹이는 것은 영양학적으로도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미역국은 대체로 3월 또는 7월까지 먹지만 産母의 健康回復에 따라 더 오랫동안 먹을 수도 있으며, 産母의 식사는 하루 6회가 보통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4회를 먹는 수도 있다(문승규, 1973). 본 조사에서도 解産後 調理는 시부모의 관점에 따라 짧게는 3일, 길게는 3칠일까지 시키고 있었으며, 식사 횟수도 4번 또는 7 이상을 시어머니가 해 주는데로 먹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解産後에 産母는 방에 따뜻이 누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람을 못 쓰이게 방밖의 출입을 삼가고, 시어머니가 따듯한 물을 떠다 주어 방에서 세수하고, 찬물에 손도 못 씻게 하였으며, 방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문을 가리기도 하는 등 해로운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가 상하지 않도록 김치 등 신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았다. 드물게는 친정에 가서 解産後 調理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시집에서 시어머니가 산모를 거두었다. 이때 産母는 시부모 의사에 순종하면서 조심스럽게 조리에 임하였다. 시부모를 조심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지시가 있기 전에 조리를 끝내야 하였고, 가정상황에 따라서 거의 조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본 조사대상자들은 미역국과 밥을 먹는 외에 解産後에 특별히 補藥을 복용하지는 않았으나 解産後에 산모에게 營養이 더 많이 필요함을 인식하고는 있었고, 'ㅇ 할머니'의 전술로 머루이 보아 家勢에 따라 解産前後에 補藥을 먹여 解産의 기력을 돕거나 解産後 産母의 健康回復을 돕기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營養의 問題는 解産後에 젖이 나오는 것과도 관련된다. 「東醫寶鑑」(외형편, 3권)에 “産後에 젖이 안나는 경우기 두 가지가 있으니... 그중 한가지는 氣血이 약하고 말라 運行하지 않는 病이니 虛한 病은 補하고...”라고 되어 있듯이, 産後 營養管理는 母乳生産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자료의 다음 진술에 잘 나타나 있다. 유아에 있어서는 유일한 영양보충 방법이니 젖이 풍부하면 아이도 자연히 健康하고 젖이 부족하면 충분한 영양을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젖이 풍부한 産母는 育兒에 아무지장이 없으나 부족한 産母는 지장이 많으므로 乳道不足을 시정해서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심한다(임동권, 1971). 이렇듯 충분히 授乳할 수 있을 만큼의 母乳生産이 중요하므로 젖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미역국과 고기국을 많이 먹고, 전술한 바 있듯이 삼신에게

빌며, 어떤 사람은 젖이 잘 나오도록 祈願行爲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젖은 解産後 삼일정도가 지나면 잘 나오므로 그 때 이후에는 아이에게 자신의 젖을 먹이지만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젖을 먹이며, 또한 젖이 적을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젖을 나누어 먹이는 등 이웃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젖 잘나게 하려고 미역국에다가 또 난지 며칠 지내면 또 피기국에다가, 어른들이 그렇게 잘해 준게, 젖이 잘 나지... 그리고 이제 젖 많은 사람은 많이 얘기 먹고 남은 사람은 젖 작은 사람들이 가서 맥여 갖고 오지. 어디다 따라서 손가락으로 떠어서 먹어. 사흘안에 젖이 돌아오니, 어디가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 난 젖인가 먹이고 그 다음에는 첫국밥을 먹는데 처음서 먹으면서 젖국세기에다가 미역국을 풀어서 먹으라고. 사흘만 되면 젖이 돌아오는데 젖을 먹어. 사흘안에는 녀의 젖을 얻어다 먹이고 사흘 지나면 젖이 나오니까 제 젖을 먹여(원똥, ㅇ 할머니)”

“애 낳고 젖이 膾帶로 나중에 그러다가 붙어져 버렸지 안 먹이니까. 나중에 부터는 젖이 줄어들었지. 애 낳고 젖 잘 나오라고 아무 것도 안했어 젖이 조개 적어. 낳고 나니 그 동네 초상이 나버렸어. 나 놓고 나서 초상이 나니까 늘 함께 싸고(아래똥, ㅇ 할머니)”

그밖에 産母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도 제시되었다. 즉 産後痛, 産後의 浮腫 등이 나타났다. 「東醫寶鑑」에는 産後에 浮腫이 나는 病은 敗血이 浮腫에는 반드시 氣血을 大補하는 法으로 爲主하여 藥을 쓴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는 産後 浮腫에 호박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民間療法에서 産後 浮腫에 호박으로 치료하는 방법(김일훈, 1986)과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를 12월 동짓달 음력으로 11월달 낳는다, 추웠는데 배가 아파 애기 낳고서 훗배 아픈거 더 죽겠어. 한 며칠인가 못 나오고 있으게 안 아파. 늘 낳을 수록 더 아프고, 훗배가 아프면 약을 해 먹을 줄도 모르고 어른들이 그전서 부터 배가 아파도 약을 안 먹었다고(원똥, ㅇ 할머니)”

“아 배 아프고 인자, 탈 있으면 오만 데가 다 아파. 탈이 붙으면, 애기 낳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탈 붙은 사람도 있고 그러, 여러가지지. 애 낳구는 훗배가

제일 아프당게, 낮게 되면 그것은 나서, 세이레 까지 계속 아파. 낮도록 냅두지(아래뜸, ㅅ 할머니)”

“다른 저 붓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호박 삶아 먹고 그런 사람들이 빠진다 그러드만(원뜸, ㄱ 할머니)”

또한 전술된 바와 같은 解産後 調理가 집안의 여건 등으로 여의치 않았을 때 産後風, 局所的 産褥熱이 발생했음도 알 수 있다.

“집에서 이렇게 망구가, 거시기만 해 줘서. 첫 국밥만 해 줬어. 그러고는 누가 빨래를 해 줄 것이여. 못 헹것이어 그런게. 친정 우리 어머니 난동네 집에 있는디 오시간디 그러고 아버지 홀아버지니까 안 오시어. 시어머니 없고 시아버지 계시니까 이래도 안 오고 저래도 안 오고 어찌것소. 그 때만 해도 그 때만 해도 그랬어요 누가 친정 부모를 거시기 했어. 친정어머니를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친정을 마음대로 다니고 그랬어. 그 때만 해도 거시기를 안하고 어떻게 내일이 처칠 넘어가고 금계... 사흘 지나고 그렇게 허리가 애이기 시작해 갔고 바람이 든게 뷔어 인제 생각해 보니. 바람이 들어 시방 그렇게 허리가 아파. 칠월달에 백중에 넘어가 버린게 양쪽 모기장을 쳐 놓은 게 모기장 바람이 전부 허리로만 다 들어가고 해서지. 애기를 못 해. 애기를 못 하고 허리가 아파 죽는다고 안 했어. 어떻게 바람이 들어썬게. 누가 덮는 것인지 모르고 나도 안 덮고 훌치마만 입고 삼베 치마 고놈만 입고 요 바람에 양쪽 바람이 거시기 보름이 넘으니까 7월 허리에 바람이 들어 갔고 바람이 들어서 사흘 지나고 애리어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도 약을 해 먹어 봐서 뭐도 인자 날이 가고 시간이 간게 밤 먹으니까 땀기지(아래뜸, ㅇ 할머니)”

“애기 나면 막 밑에가 찢어져. 그래서 덧이 나면 막 이렇게 부서. 밑에가. 아 인자 오래 되면 그냥 나서. 내버려둬. 밥도 었디어서 앉아 먹고. 큰 동서는 애 첫애기 낳고 거기가 찢어져서 이렇게 부서서 이래 다 가도록 막에 못 나왔어(아래뜸, ㅅ 할머니)”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동네 호주 사람들 집에 갔어. 망구를 불렀어. 왜 그러냐고 그러구만, 와 보라고 거시기를 못 올라 다녔어 덧이 났는데 덧 난줄 알았잔디 마루도 못 올라다니고, 정지도 못 가고 기어서 갔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덕순이는 열 배살 먹고 덕범이는 열 살 먹고 뒷을 헹 것어. 거시기 발에를 기어가다시피 하고 갔다 와 갔고. 대체 이 놈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아파 땀기고 싶어 요렇게 보니까. 장군 주둥이 땀이로

이렇게 부서서 되 도져버렸으니 어쩔것이요(아래뜸, ㅇ 할머니)”

“첫애기 낳고 아프면 무슨 털개신 [짚신] 이라던가 뜨뜻하게 지지면 그냥 나서뿐다던가, 그라녀봐서 몰라도(원뜸, ㄱ 할머니)”

“후딧, 그런 사람은 그런가 몰라도 이런 사람은 그래보들도 안했어. 그냥 좋게 그냥... 시어머니가 잘 해 주시니까(원뜸, ㄷ 할머니)”

이처럼 産褥期 疾病이 발생하였을때 이에 대한 조치는 매우 미흡하였음을 볼 수 있다. 최선의 방법이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 치유를 기다리거나 전해들은 비법을 행하는 것이었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解産後에는 금줄을 매고, 胎處理를 하고, 新生兒와 産母를 돌봄에 있어 독특한 행위가 나타났다. 금줄은 解産에 관한 정보를 부락 전체에 알려서 외부인으로 하여금 産室에 접근을 금하도록 하여 産母와 아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기능하였다. 또한 이웃은 아이가 不正 타지 않도록 여러 행위를 삼가함으로서 부락 전체가 대처하는 集團의인 돌봄행위를 볼 수 있었다. 胎 역시 손없는 날, 장소와 방위에서 처리하므로써 産母와 아이에게 탈이 없도록 祈願을 하였다. 아이를 낳아서 害毒하고 배꼽 看護를 하고 沐浴을 시키는 것 등은 집안어른들의 養育에 대한 가르침을 본받아 행하였는데, 이는 대개 아이를 청결히 돌보아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고 편안히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解産後에 産母에게 첫국밥을 해주고 친바람, 친물, 신 음식 등을 금하고 몸조리를 하도록 하는데 주로 시어머니가 産母를 거두었다. 産母는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시키는 대로 解産後 調理를 하였는데, 시부모를 조심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이 말하기 전에 조리를 끝내야 하였다. 시부모가 産母를 잘 거두지 않았을 경우 가정의 형편상 解産後 調理가 여의치 않았을 때 여러 合併症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젖이 잘 나오도록 家族들이 産母를 補하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젖이 잘 나오지 않는 생후 3일 이내나 젖이 적을 경우에는 젖을 나누어 주는 이웃의 도움도 있었으며, 7이레마다 떼운 하여 친척들과 아이의 生存과 健康에 대한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등 돌봄행위가 集團의으로 이루어졌다.

孕胎와 解産에 관련된 돌봄을 위와 같이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를 제기된 研究 問題에 따라 다시 정리해 본다. 孕胎와 解産에 관련된 돌봄의 제공자는 시어머니, 시할머니, 큰 동서, 시백모, 친 인척을 포함



한 이웃, 남편, 친정 어머니이었다. 이들 중 시어머니가 주요 돌봄 제공자이었고, 시어머니가 없을 경우 시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시댁의 여자 어른이었다. 시댁의 여자 어른이나 도와 줄 이웃이 없을 경우에는 남편이 대신하였으며, 초산이 아닌 경산의 특별한 경우에만 시댁 어른들의 허락하에 친정 어머니의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태아 또는 신생아의 돌봄에는 모성 자신도 참여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孕胎와 解産에 관련된 돌봄은 시어머니가 주 제공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사의 주도권을 직접 지니고 있던 서열순으로 돌봄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집안의 여자가 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볼 때 孕胎와 解産을 통해 아이를 出生함으로써 家門의 代를 잇게 하는 요성의 소관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이 극히 일부 사례에서 解産時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出生과 관련하여 남자들의 역할은 거의 없었고 볼 수 있는데, 이는 儒敎의인 傳統에 의해 돌봄에 있어서도 男女有別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돌봄 제공자로서 이웃은 대부분이 집안의 친척이며, 친척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신분 계급의 여자 어른이다. 예를들어 常民의 경우는 같은 상민층에게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듯이, 같은 신분 계급내에서 돌봄이 이루어졌다. 또한 오늘날 孕胎와 解産에 친정 어머니의 역할이 큰 것과는 달리 과거에는 친정 어머니가 出生과 관련하여 어떤 시기든 가장 우선권이 낮은 돌봄 제공자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남계친 혈통을 중심으로 가부장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친정 가문이 시집의 일에 간섭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여자가 일단 출가하면 시집의 사람으로 행세해야 하였으며 시집을 위해 모든 의무를 해야 했었고, 孕胎와 解産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친정의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시집에서 解産을 도와줄 여자 없는 “○ 할머니”의 경우 친정 어머니가 있어도 解産을 도와줄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이들 엇볼 수 있다. 이처럼 이처럼 시집과 친정간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임종의 해계모니 다툼 이외에도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도 있다. 이 지역의 통혼권을 살펴보면 부락외혼제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이 부락과 친정과 거의 8km 이상에 떨어져 있다. 이 지역의 교통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한 孕婦가 친정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정확히 해산 예정일을 맞추어

친정에 갈 경우 중도 분만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출발해야 하는데, 해산일까지 가사일을 돌봐야 했던 집안의 경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사일을 대신 돌볼 수 있는 여러 종복을 두고 있고 교통수단으로 가마를 소유하고 있던 “○ 할머니” 집안에서만 허용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돌봄 제공사건에는 序列 즉, 階級性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돌봄 대상자는 오늘날과 같이 모체나 신생아 개체가 아니라 부부, 태아, 신생아를 포함하여 집안이라는 集團이었다. 오늘날에도 家門의 代를 잇기 위해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 있을 만큼 전통사회에서는 家門의 代를 잇는 일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孕胎와 解産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집안, 즉 家門의 일로서 다루어졌다.

이처럼 돌봄 제공자나 대상자가 모두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이웃까지를 포함하는 集團이었다. 돌봄은 제공자와 대상자간의 人間關係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간에는 엄격한 位階가 있어 제공자는 대상자보다 연장자이면서 손위사람으로 解産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돌봄 대상자는 돌봄 제공자에게 순종하여 가르침을 본받아 그대로 따르고 받아들이는 한편 조심하고 마음을 헤아려 행하는 것이 윗사람에 대한 예우일 뿐 아니라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이었다.

출생시 돌봄과 관련된 행위유형과 돌봄의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표1>과 같다.

이들 돌봄개념 중 ‘祝願하다’, ‘禁하다’, ‘補하다’ 및 ‘마련하다’는 의미를 가진 행위가 특히 두드러졌다. ‘祝願하다’, ‘禁하다’라는 돌봄개념은 ‘삼시랑상’과 ‘금줄’이라는 象徵과 깊은 연관을 지닌 것들이다. 祝願은 所願하는 결과를 일으키게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고, 禁은 所願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같은 목적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儀禮行爲는 모두 自然神의 攝理에 의존하여 産母와 出生兒의 生命을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超越의인 힘을 중시하는 韓國 民間信仰 現象을 볼 수 있다. 이는 “原始人의 呪術 내지 原始宗教는 자아를 항상 발전시키려는 생활상의 현실적 기반을 갖는 과학적 태도로서 呪術 내지 原始宗教 그 자체가 原始人의 科學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생활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神의 능력 내지 주력에 의존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었기 때문”(김태곤, 1973)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질병, 사망의 원인

〈표1〉 출생시 돌봄개념과 그 범주

돌봄의 구성요소	돌봄행위의 유형	해산전	해산시	해산후
보호	금하다	○		○
	몸조리하다			○
	보하다	○	○	○
	예방하다			○
지원	축원하다	○	○	○
	덕담하다	○		
자기 수양	절제하다	○		
	조심하다	○		○
	참다		○	
가르침	이르다	○		
	본받다			○
	배우다	○		
준비	마련하다	○	○	
	염려하다		○	
	관심을 갖다	○		
	배려하다		○	
이심전심	함께 하다		○	
	헤아리다			○
도움	돕다		○	
	충고하다	○		
복돋움	의지하다		○	
	격려하다		○	
나눔	고락을 나누다			○
	음식을 나누다			○
부양	거두다			○
	기르다			○
만짐	만지다		○	
연민	안스러워하다		○	
안위	마음을 편안히 해주다		○	

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傳統社會에서는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초월적인 힘이 사람의 生命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돌봄의 형태들은 祈願과 禁忌행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교육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행위의 근거를 알려서 행하도록 하기 보다는 禁忌만을 지키도록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급과 같이 물자가 풍부하지 않고 저급저속해야 했던 고로 일상시보다 많은 물품이 필요한 解産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부터 필요한 것을 '마련'해 놓았을 뿐 아니라, 解産의 전 과정을 통해 건강한 상태의 모체와 아이를 '補'함으로써 현대적 개념으로 볼 때 일차 예방을 도모하였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孕胎와 解産에 관련된 돌봄은 健康한 子女를 많이 얻기 위해 妊婦와 아기의 生命과 健康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 V. 結 論

본 논문은 韓國人의 傳統的인 돌봄 概念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한 부분으로서, 出生狀況을 중심으로 하여 돌봄 概念 및 그 意味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출생과 관련된 돌봄 제공자는 우선 순위별로 시어머니, 시집의 여자 어른, 이웃의 여자 어른, 남편 및 친정어머니였고 돌봄 대상자는 태아와 신생아 및 임부는 물론이고 가문의 구성요소로서의 가족 전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과 관련된 돌봄행위의 유형으로는 기원하다, 돕다, 금하다, 절제하다, 관심을 갖다, 덕담하다, 충고하다, 이르다, 배우다, 조심하다, 마련하다, 배려하다, 참다, 안스러워하다, 함께하다, 접촉하다(만지다), 의지하다, 격려하다, 마음을 편안히 해주다, 염려하다, 본받다, 예방

하다, 거두다, 기르다, 몸조리하다, 헤아리다, 보하다, 고락 및 음식을 나누다로 나타났다. 이 29개의 속성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정, 만짐, 부양, 가르침, 기원, 안위, 북돋움, 나눔, 이심전심, 자기 수양, 보호, 준비, 도움, 연민의 14개 範疇가 나타났다.

출생시 돌봄으로 '기원하다', '금하다', '보하다', '마련하다'는 概念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 돌봄행위는 모두 孕婦와 胎兒 또는 出生兒의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孕婦 자신은 물론이고 시어머니를 포함한 家族, 나아가서는 이웃의 돌봄까지도 포함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돌봄 제공자간에 그리고 돌봄제공자와 대상자간의 엄격한 급수성의 원리와 돌봄의 집단적 성격 및 유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출생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가문의 사건으로 취급되었고 따라서 출생 상황을 둘러싸고 가족간에 독특한 응집력이 표출됨을 알 수 있었다.

출생과 관련된 돌봄행위에는 그와 같이 生命에 관한 意味가 강하게 노출되고, 民間이 지닌 信仰이나 價値觀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어, 人間의 出生은 超越의인 힘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韓國 民間信仰 現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醫學이 발달되지 않아 孕胎, 解産과 관련된 事故와 疾病으로 母性死亡率과 胎兒死亡率이 높았던 시대에 이루어진 이러한 돌봄행위들은 非科學의인 것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것이 지닌 肯定性과 合理性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對象者 中心의 個別的인 看護를 강조하는 현대 이와 같은 對象者가 지닌 傳統的인 돌봄행위의 肯定性과 合理性을 취하고, 그들의 文化的 側面을 감안하여 거기에 깊은 科學的 原理를 부가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韓國의인 看護接近을 發達시켜 나아가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고부자, 제주도의 産後俗, 韓國民俗學, 9집, 1976, 93-111.
- 김동욱 등, 韓國民俗學, 서울: 새문사, 1988.
- 김성배, 韓國의 民俗, 서울: 집문당, 1980.
- 김승찬, 허영순, 부산지방의 産前俗, 韓國民俗學, 3집, 1970, 1-22.
- 김일훈, 신약, 안양: 나무, 1986.
- 김태곤 등, 韓國宗教, 이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3.
- 문승규, 한국농촌에 있어서 育兒慣行, 한국연구총서 1,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 박규홍, 韓國民俗學概論, 서울: 형설출판사, 1983.
- 박대복, 실회주인공의 出生과 民間信仰, 韓國民俗學, 20집, 1987, 109-132.
- 방매륜,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 빙허각 이씨 / 정양완 역주, 閨閣叢書, 서울: 보진제, 1809.
- 소혜왕후 한씨, 송시열 / 김종권 역주, 內訓·戒女書, 서울: 명문당, 1986.
- 손인주,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문음사, 1978.
- 손진태, 한국민속 문화산고, 서울: 태학사, 1981.
- 신재용, 속 알기 쉬운 한의학, 서울: 동화문화사, 1989.
- 심상용, 한방식요 해전, 서울: 창조사, 1976.
- 안지영, 현대를 사는 생활지혜, 서울: 양영각, 1984.
- 양재연 등, 韓國風俗誌, 서울: 을유문화사, 1971.
- 유안진, 韓國의 傳統社會의 幼兒教育, 서울: 정민사, 1984.
- 유태중, 식품보감, 서울: 대운당, 1989.
- 윤순영, 현대의료와 한국농촌의 의료문화 - 의료인류학적 고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지역사회 보건위원회, 1978.
- 이광규, 韓國人의 一生, 서울: 형설출판사, 1985.
- 이경복, 조선시대 産俗研究, 韓國民俗學, 11집, 47-64.
- 이능화, 朝鮮女俗考, 서울: 대양서적, 1926.
- 이두현, 이광규, 한국생활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 이두현, 이광규, 장수근, 韓國民俗學概論, 개정판, 서울: 학연사, 1983.
- 이선숙, 임옥새, 한국가정생활사, 서울: 교문사, 1988.
- 이승녕 등, 대국어사전, 서울: 현문사, 1982.
- 이 이, 성학집요, 서울: 대양서적, 1575.
- 유자정, 소학, 1187.
- 인병선, 집문화, 서울: 대원사, 1989.
- 임동권, 한국민속학논고, 서울: 선명문화사, 1971.
- 임동권, 한일 산속속의 비교, 韓國民俗學, 12집, 1980, 145-156.
- 장장식, 금기 설화연구, 韓國民俗學, 17집, 1984, 85-99.
- 장 피아제 / 오세철 역, 현대학문체계와 그 앗물림, 서울

- : 연세대학교출판부, 1980.
- 정민성, 민족의학의 재발견, 서울: 학민사, 1989.
- 최영희, "문화적 측면의 간호", 이대간호대학 학술심포지움 보고서, 1989, 27-42.
- 허준, 東醫寶鑑, 서울: 동의보감국역위원회, 1612.
- Guillemoz, A., 삼신할머니, 문화인류학, 7집, 1975, 21-38.
- Leininger, M.M., *Transcultural Nursing: concept, theories, and practices*, New York: Wiley, 1978.
- Leininger, M.M., *Caring: An essential human need*, Sluck Pub. Inc., 1981.
- Leininger, M.M.,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Orlando FL: Grune & Stratton, 1985.
- Leininger, M.M., Leininger's theory of nursing: Cultural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Nursing Science Quarterly*, 1988, 1(4), 152-160.
- Porter, E.J., The qualitative-quantitative dualism, *Image*, 1989, 21(2), 98-102.

-Abstract-

## Study on Folk Caring in Korea for Cultural Nursing

Ko, Seoung Hee\* · Cho, Myoung Ok\*\*

Choi, Young Hee\*\*\* · Kang, Sin Pyeo\*\*\*\*

Care is a central concept of nursing. Nursing would not exist without caring. Care and quality of life are closely related.

Human behavior is a manifestation of culture. We can say that caring and nursing care are expression of culture. The nurse must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culture with care for ensure quality nursing care. But knowledge of cultural factors in nursing is not well developed. Time and in-depth study are needed to

find meaningful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care. Nurse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ulturally appropriate nursing

There are two care systems in culturally based nursing. The folk care system and the professional nursing care system. The folk care system existed long before the professional nursing care system was introduced into this culture. If the discrepancy between these two care systems is great, the client may receive inappropriate nursing care.

Culture and subcultures are diverse and dynamic in nature. Nurses need to know the caring behaviors, patterns, and their meaning in their own culture. In Korea we have taken some first step to study cultural nursing phenomena. It is not our intent necessarily to return to the past and develop a nationalistic of nursing, but to identify the core of traditional caring and relate that to professional nursing care.

Our Assumptions are as follows:

- 1) Care is essential for human growth, well being and survival.
- 2) There are diverse and universal forms, expressions, patterns, and processes of human care that exist transculturally.
- 3) The behaviors and functions of caring differ according to the social structure of each culture.
- 4) Cultures have folk and professional care values, beliefs, and practices. To promote the quality of nursing care we must understand the folk care value, beliefs, and practices.

We undertook this study to understand caring in our traditional culture.

The Goal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o identify patterns in caring behavior,
- 2) To identify the structural components of caring, and
- 3)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some principles of caring.

\*Chonbuk National Univ., Dept of Nursing

\*\*Gaejeung Junior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 The Head of Ethnology Research institute

We raised several questions in this study. Who is the care-giver? Who is the care-receiver? Was the woman the major care-giver at any time? What are the patterns in caring behavior? What are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caring process?

We used an interdisciplinary team approach,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nursing and anthropology, to contribute in-depth understanding of caring through a sociocultural perspective.

A field study was conducted in Ro-Bong, a small agricultural kinship village.

The subjects were nine women and one man aged 60 or more years of age.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15 to 21, 1990 through open-ended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The interview focused on caring behaviors surrounding birth, aging, death and child rearing.

We analyzed these data for meaning, pattern and principles of caring. In this report we describe caring behaviors surrounding childbirth.

The care-givers were primarily mothers-in-law, other women in the family older than the mother-to-be, older neighbor woman, husbands, and mothers of the mother-to-be.

The care receivers were the mother-to-be, the baby, and the immediate family as a component of kinship.

Emerging caring behavior included praying, helping, proscripting, giving moral advice (Deug-Dam), showing concern, instructing, protecting, making preparations, showing consideration, touching, trusting, encouraging, giving emotional comfort, being with, worrying about, being patient, preventing problems, showing by an example, looking after bringing up, taking care of postnatal health, strengthening the health condition, entering into another's feelings (empathizing), and sharing food, joy and sorrow.

The emerging caring components were affection, touching, nurturing, teaching, praying, comforting, encouraging, sharing, empathizing, self-discipline, protecting, preparing, helping and compassion.

Emerging principles of caring were solidarity, hierarchical relationships, sex-role distinction.

Caring during birth expresses the value of life and reflects the valued traditional beliefs that human birth is given by god and a unique unifying family event reaching back to include the ancestors and forward to later generations.

In addition, we found positive and rational foundations for traditional caring behaviors surrounding birth; these should not be stigmatized as irrational or superstitious. The nurse appropriately adopts the rational and positive nature of traditional caring behaviors to promote the quality of nursing care.